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만들어진 홈스쿨 커리큘럼

# 코너스톤 커리큘럼



“세계 어느 곳의 선교 현장에서든 코너스톤 커리큘럼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홈스쿨러와 대안학교를 위한 코너스톤 커리큘럼”

## 코너스톤 커리큘럼의 특징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성경성품에 기초하여 역사, 국어, 한문, 영어 등 다른 교과목과 연계해 통합 교육적 공부법을 제시하여 기존의 교육으로는 채울 수 없는 새로운 교육 철학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모두 10단계로 구성되어 1~5단계에서는 언어의 기초 능력을 확실히 다지고 6~7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공부하며 8~10단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과 성품 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성경과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샬롯 메이슨 교육 방법론과 고전교육 방법론에 따라 고전 문학 작품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저자의 맘이 서린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서술하기, 소리내어 읽기, 랩북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코너스톤 커리큘럼의 단계별 구성

<b>1단계</b> 세계사 I 만6~8세	<b>2단계</b> 세계사 II 만7~9세	<b>3단계</b> 한국사 만8~10세	<b>4단계</b> 한국기독교사 만9~11세	<b>5단계</b> 동양사 만10~12세
<b>6단계</b> 세계사심화 I 만11~13세	<b>7단계(준비중)</b> 세계사심화 II 만12~14세	<b>8단계(준비중)</b> 한국사심화 만13~15세	<b>9단계(준비중)</b> 한국기독교사심화 만14~16세	<b>10단계(준비중)</b> 세계교회사 만15~17세

##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피조물로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므로 자신의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2. 코너스톤 커리큘럼은 10단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1~5단계에서는 언어의 기초 능력을 확실히 다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6~7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논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8~10단계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성경과 성품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에 보시기에 바른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성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벧전:15-16).
4. 성경과 역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샬롯 메이슨 교육 방법론에 따라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고전 문학 작품부터 현대의 작품까지 저자의 맘이 서린 좋은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서술하기, 소리내어 읽기, 랩북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법을 일깨워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7. 커리큘럼은 36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어린이들의 성취도에 따라 진도와 학습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안학교, 코업에서 <커리큘럼 가이드북> 단체 구매를 원하시면 전화 주세요.

## 문의/상담

코너스톤 커리큘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전화/이메일/방문)  
TEL. 02)529-7722 | EMAIL. dctybooks@dcty.co.kr | HOMEPAGE. www.dctybooks.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el.02)529-7722 | www.dctybooks.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hy God!

2012년 신입생  
현재모집

서울 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2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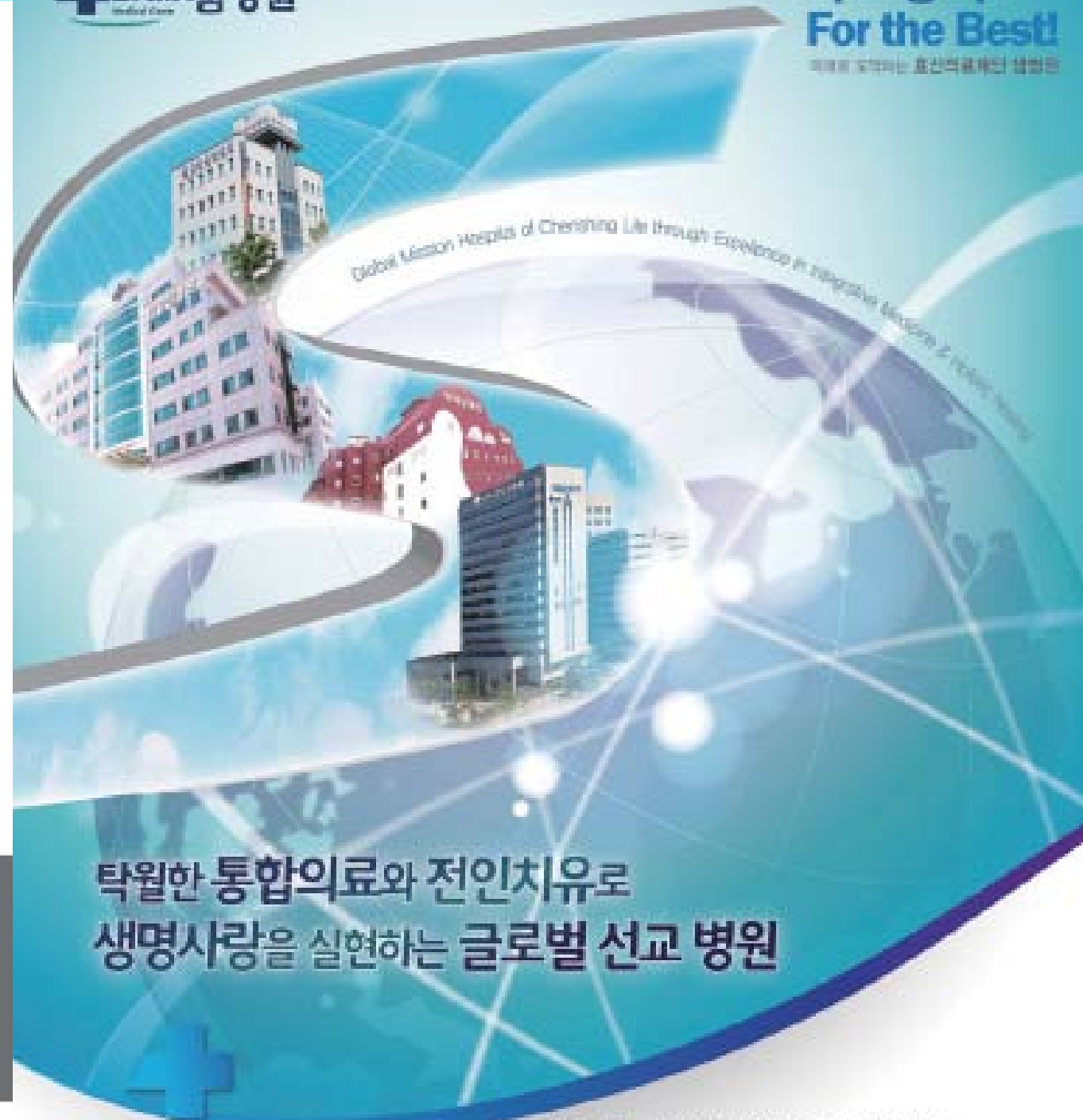
Senior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생 1-4학년)

.....▶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거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SICA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문의 557.7710  
sicaacademy@dcty.co.kr  
www.sicacademy.org



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 병원

- 입에 대한 '통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 통합의학연구소
- 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인공관절수술 부문 우수기술 보유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합성 평가 '최우수 등급' 병원
-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시술 인증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선정 외국인환자유치 종합병원 부문 1위 병원

연암생약원 031-467-9114 생애생병원 031-467-1000 불탄생병원 031-463-4310 4생병원 031-457-9114

통합의학상담센터 031-467-9188 / 9388 | 관동전문센터 031-467-9167 | 남학수센터 031-467-9285 | 치과센터 031-463-0363  
생경중의학센터 031-463-4331~2 | 생신협의학센터 031-463-4390~2 | 응급센터 031-467-9119 / 9129 | 산후조리원 031-467-1190  
산면관리실 031-467-1830~1 | 민원구노원보건센터 031-466-6370 | 생생원교회 031-467-8335 | 강역시점 031-467-9700 / 9770

# 과도기의 서러운 세대



## 손봉호(대표주간)

나는 올해 주민등록 나이로 74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75살이다. 내가 태어날 때는 신생아 대부분이 1년 이내에 죽었기 때문에 한 돌이 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다. 돌잔치를 성대히 하는 풍속이 생긴 것은 삶의 첫해를 넘기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겨우 살아남은 우리는 일본 강점기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칡뿌리를 캐 먹었다. 6.25 전쟁 때는 많이 죽고 다졌다.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주워 먹는 것을 행운으로 알았고, 외국인이 입다 버린 구호물자로 추위를 견뎠다. 독재 치하에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다.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하여 문자적으로 피와 땀을 흘렸고 외국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으로 온갖 천대와 수모를 다 감수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도기 세대의 서러움을 당하고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한 마지막 세대, 자식에게 효도 못 받고 어른 대접 못 받는 첫 세대,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 자식과 같이 사는 것이 썩스러운 첫 세대, 어른들 말을 경청한 마지막 세대, 자신들의 말이 콧방귀로 들리는 첫 세대가 되었다. 가족을 위하여, 자식과 나라를 위하여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고 사회로부터 무시 받는 서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자립하려니 늙었다고 일자리를 주지 않고, 자식도 국가도 돌봐주지 않으니 자살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다. 65세 이상의 노인 10만 명당 81.4명이 자살해서 일본의 17.9명, 미국의 14.1명의 거의 5배나 된다. 부양할 자식이 있다고 국가는 외면하고, 자식은 자기 자식 사교육비 지출로 여력이 없고, 노인들은 배와 선창 사이에 빠져버렸다. 오늘의 한국인은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 같은 처지에 있다.

교회도 노인들에겐 관심이 별로 없다. 돈이 없으니 헌금도 많이 못 하고, 힘이 없으니 봉사도 못하고, 껌케 묵은 생각에 발언권도 없고, 정중하게 무시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듯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사회가 보호하는 것이 공정하다. 부잣집 아이들은 비싼 유기농 식품으로 공짜 점심을 먹이면서 힘없는 노인들은 자살하든 말든 방치하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 모든 노인을 다 우대할 필요도 없다. 돈 있는 노인들은 지하철 요금도 물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노인들만 더 도우면 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해 줘야 한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를 없애고 일본처럼 노인들로 통행료를 받도록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효율성도 좋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영원히 늙지 않을 것이라 착각한다. 우리도 젊을 때는 그랬는데 당해보니 착각이더라. 노후대책이란 노인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해야 한다. 돈만으로 되지 않는다. 노인 보호 정책, 노인 존중 문화가 중요한 노후대책이다. 당신들이 늙었을 때 지금의 노인 신세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푸대접한 사람은 푸대접받기에 십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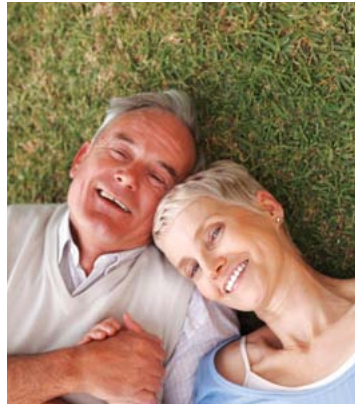
노인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제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 지시할 시간은 지나갔다. 어차피 노인들이 책임질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들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반세기가 넘도록 시행착오를 거쳐 쌓은 경험과 삶의 지혜를 그대로 사장해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새 세대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해 보니 좋더라, 저렇게 해 보니 나쁘더라.” 젊은 세대에게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 공연히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며 철도공사 적자만 늘이지 말고 노인정에 모여 앉아 바둑이나 둘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길가의 쓰레기도 줍고, 담배 피우는 학생들, 남이 보는 데서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는 젊은 것들, 담배꽂초 버리는 철없는 철부지들을 꾸짖고 나무라야 한다. 혼자 하면 못된 놈들에게 폭행당할 수도 있으므로 몇 노인이 무리를 지어 잔소리 부대를 조직하는 것이 좋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젊은 세대에 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나 자살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생명정시 풍조를 강화해서 사회를 돕기보다는 해를 끼친다. 곱게 늙자.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 Contents

WORLDVIEW · JULY · 2012



# WORLDVIEW

2012년 7월호 WORLDVIEW 통권 145호



표지인물  
자넬 커리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OVER STORY

- 10 기독교세계관 좌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한 교계의 반응과 과제\_김정욱
- 12 지상특강 지상 특강 '그리스도인과 기후 변화: 반응의 범위 이해'\_자넬 커리
- 14 칼빈대학소개 복음주의 지성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칼빈대학\_한윤식

## SPECIAL

- 16 다가오는 위기를 지혜롭게 준비하라\_최윤식
- 20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_배성민
- 24 시니어! 하프타임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라\_박호근
- 28 4번과 23번\_이제훈

## COLUMN

- 02 대표주간 칼럼 과도기의 서러운 세대\_손봉호
- 08 발행인의 글 장수시대\_김승욱
- 39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다시 <장수만세>를 꿈꾸다:대중문화가 그리는 노년의 삶\_박진규
- 42 그림책이야기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과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_현은자
- 46 미술이야기 최순민, 영원한 안식의 집\_서성록
- 50 학술대회 참관기 CPS 학술대회 참관기\_신찬웅
- 52 가족학이야기 가정사역에서 가족생활주기 이론의 활용\_김성은

## CULTURE

- 36 포토에세이 빛으로 채운 사랑\_정일권
- 65 유머 기차여행\_손봉호

## BOOK REVIEW

- 61 서평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_추태화
- 63 서평 신을 탐하다\_최홍준

## NEWS

- 66 월드뷰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중모, 이상정  
기자 임지연  
녹취 남서희  
사진 정일권  
디자인 황정희  
인쇄 안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facebook.com/cworldview)

# 장수시대

김승욱(발행인)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10년에 약 만 명 정도였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세 시대를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40%)이 축복이라는 응답(32%)보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10년에 약 만 명 정도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대표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의 4만 명(2009년)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100세 이상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0세 시대를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40%)이 축복이라는 응답(32%)보다 많았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장수는 이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령화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복지국가 개념이 쇠퇴한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념 때문이 아니라 고령층을 부양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GM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퇴직 근로자들의 의료비를 회사가 평생 지급하기로 약속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을 편 지 30년이 되어, 이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그러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비중이 너무 급속하게 높아져 생산성이 급속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위생, 암 정복, 장기 이식, 호르몬 요법, 유전자 치료의 5단계 수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선진국도 이제 겨우 위생단계를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4단계 혁명이 현실화되면 고령화 인구는 세계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관리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재활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활병원의 대부분 환자는 상체는 멀쩡한데 하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체를 사용 못 하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한 일거리나 생활수단 마련 등을 위한 인생 2막 준비도 필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삼모작 시대에 들어섰다고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원숭이의 머리와 몸을 교환하는 수술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기술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사서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술발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사상적 뒷받침이 없으면 어떤 끔찍한 사회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대응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 경제사학회 회장역임.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정책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장.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대한 교계의 반응과 과제

-커리 교수와의 좌담회를 마치고-



2012년 4월 19일 미국 대사관에서 캘빈 대학의 재넬 커리(Janel Curry) 교수(지리학)와의 좌담회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그 내용은 미국 기독교계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움직임에 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앞으로 기독교인 학자들의 역할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우리 측에서 참석한 사람은 경희대의 유정칠 교수(생물학), 고려대 정서용 교수(환경법학), 서울대 홍중호 교수(환경경제학), 그리고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정욱 교수(환경공학)이었다.



**김정욱 (金丁勳)**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드 아일랜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으로 석사, 텍사스 대학교(오스틴)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였다. 1982년부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임 원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재넬 커리 (Janel Curry) 박사 소개** 1977년 미네소타 밴델 칼리지 졸업(BA), 1981년 미네소타 대학 지리학 석사, 1985년 미네소타 대학 지리학 박사 학위 취득했다. 1996년 캘빈대학 지리학부 교수. 현재 정치, 사회 및 경제 사상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게리 및 헨리에타 바이커 석좌 (the Gary and Henrietta Byker Chair) 교수로서 미국 및 캐나다의 지리와 문화 지리학 입문을 가르치고 있다.



커리 교수는 미국의 교단별로 기독교 신자들의 세계관과 환경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인간과 자연이 죄 탓에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여 타락하고 고통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얻고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피조물인 자연을 보는 관점과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태도에는 교단별로 혹은 개인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자연을 인간을 위해 주어진 도구로 보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인간을 자연에 대한 청지기로 보거나 자연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두는 신자들도 있었다. 21세기에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교회도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힘을 모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였다.



커리 교수는 한국 교회의 환경관에 대하여 궁금해하였는데, 특히 4대강사업에 대하여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물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미국은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천생태계를 파괴한다고 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다급한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환경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나마도 기후변화는 먼 문제이고 당장은 4대강사업과 원자력 발전 문제가 가장 큰 현안 과제이다. 천주교는 주교회의 결의에 따라 4대강사업과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뜻을 정하였고 불교와 원불교도 이에 대체로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계는 스펙트럼으로 흩어져 있다. 기보다는 양극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기총이 4대강사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수적인 대형교회들은 두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업들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회의 양극화가 심화하여 서로의 자리에 서로가 참석하지 않는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커리 교수가 제안한 대로 그야말로 어떻게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미국의 교계의 도움도 환영하면서, 그래서 한국의 교계가 기후변화와 같은 전 인류적이고 전 지구적인 문제에 대하여 눈을 떠서 땅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 지상 특강 ‘그리스도인과 기후 변화: 반응의 범위 이해’

(Christians and Climate Change: Understanding the range of responses)

미국 캘빈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넬 커리 (Janel Curry) 박사가 지난 4월 16일 한동대를 방문하여 위의 주제로 특강을 했다. 커리 박사는 1977년 미네소타 세인트 폴에 있는 벤엘 칼리지 졸업(BA)한 후 미네소타 대학에서 지리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아이오와주의 펠라에 있는 센트럴 칼리지에서 가르치다가 1996년 가을부터 캘빈대학 지리학부 교수로 일해오면서 캘빈대 연구 및 장학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치, 사회 및 경제사상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을 발전시키는 게리 및 헨리에타 바이커 석좌 (the Gary and Henrietta Byker Chair) 교수로서 미국 및 캐나다의 지리와 문화 지리학 입문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에 한동대에서 행한 특강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말해 기독교와 특정한 환경에 대한 신념 및 행동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며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다고 한다. 지난 40년간 많은 학자가 종교와 환경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매우 복잡한 면들을 발견했다. 본 강의에서 커리 교수는 현재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논쟁에서 기독교적 대응의 범위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자연에 대한 태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다. 첫째 종말론, 둘째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 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구성에서 통합의 수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책임에 관한 입장들이다. 이를 하나씩 간략히 살펴보겠다.

첫째로 커리 교수는 기독교의 종말론이 기후 변화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수적인 견해는 1) 신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 2)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 3)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은 인간과 피조계의 타락, 4)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인류의 회복 내지는 구속 그리고 5)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신앙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개념인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좀 더 자유로운 신학 전통에서는 진화론적 또는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사회는 “가능한” 방향으로 진보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커리 교수는 칼빈주의, 퀘이커 그리고 세대주의적 입장들을 각각 비교하면서 각각의 입장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도 미국의 문화적 가정, 특히 경제적인 자유-시장 종말론에 의해 형성됨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칼빈주의는 현세와 완성될 내세적 하나님 나라 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계에도 소망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현세적인 요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현명

하고 동정심을 가진 청지기로써 복음을 살아내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퀘이커 교도들은 후천년설을 신봉하는데 이들은 성경의 예언들이 대부분 로마 시대 때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며 역사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본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낙관주의적 종말론 때문에 이들은 평화 및 정의의 구현을 위한 사회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세대주의적 입장은 환경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종말론이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화져 폭력이 난무하고 자연재해는 증가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 환경의 변화에 관해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둘째로 커리 교수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 간의 통합에 관해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을 보존하시므로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의 살롬을 위한 계획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기후 변화의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를 위한 인간의 책임에 관해 커리 박사는 주로 개인주의적인 미국 사회의 가치관에 대해 기후 변화는 좀 더 공동체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도 합리적 사고를 하는 개인을 중시해왔지만, 이제는 ‘관계’를 더 강조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양한 입장이 가진 기본적 가정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종교적 신앙과 지배적인 문화적 신념의 차이를 분별하며, 상호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각 교회의 구조와 문화적 범위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정책은 단지 종교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국가적이고 문화적 세계관도 포함하므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상호가 필요하며 함께 공통분모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복음주의 지성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캘빈대학



“주님께 저의 마음을 온전히 바칩니다. (My heart I offer to You, Lord, promptly and sincerely.)” 캘빈대학의 강의실, 회의실, 캠퍼스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슬로건이다. 최근에는 ‘지성을 일구는 대학(Minds in the Making)’이라는 모토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마디에 135년 역사의 캘빈대학이 추구하는 신앙과 삶과 학문의 통합이 담겨있다. 학생 수 4000여 명, 교수 수 390여 명의 캘빈대학교는 32개의 학과에서 100여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북미주 기독교대학협의회(CCCU, Council of Christian Colleges and Universities) 소속의 대학으로서 가장 큰 규모이다. 교육학을 제외하고는 대학원과정인 학부 중심의 대학으로서 뛰어난 학부교육을 사명으로 교수해 오고 있다. 입학 시에 학생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거의 100% 신앙인이며 학생들의 약 50% 정도가 소속 교단인 개혁파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 출신이며 나머지는 폭넓은 개신교 교단 출신의 학생들이다.

오랫동안 복음주의 진영은 우수한 목사들은 배출하였지만 우수한 학자들을 양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35년 복음주의 지성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다는 역사적 평가에 걸맞게 이제 복음주의 진영 내의 학자들이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알빈 플랜팅가(Alvin Plantinga), 그리고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모두 캘빈대학의 학부와 교수 출신이고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은 캘빈의 교수출신, 마크 놀(Mark Noll) 및 네이션 해치(Nathan Hatch) 교수는

휘튼 출신으로서 캘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자타가 인정한다. 이처럼 캘빈대학은 북미의 기독교 정신의 흐름을 선도하고 복음주의 지성의 르네상스의 묘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각 대학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주도하는 학자들도 대부분 캘빈 출신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캘빈대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세계관적 분석과 비판을 통한 기독교적 학문의 추구가 캘빈대학의 모든 전공 영역에 걸쳐 실제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표면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캘빈대학의 모든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신앙의 통합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학생들도 세상학문의 주장 바닥에 깔린 가정 또는 전제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상적 주장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런 주장들이 자신의 믿음을 유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캘빈의 역사학자인 제임스 브라트 교수는 진정한 기독교대학에 대하여 “채플이나 성경과목의 필수화, 봉사활동의 장려, 인성교육 또는 민주시민의 자질 육성, 기독교적 용어로 미화된 중산층적 품위 배양, 기독교적 신념의 세련된 표현 혹은 학문과는 상관이 없는 경건의 강조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업이 곧 채플이 되고, 교수의 연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고, 모든 교육과정의 기초부터 교과목의 마무리까지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고, 그리고 신앙 원칙이 전문교육을 인도하게 되어야만 진정한 기독교 대학교육이다” 고 한다.



한윤식 한동대학교 전산전자공학부 교수. 한동대학교 그린정책기술연구협력센터장을 역임했으며 IEEE와 SPIE 회원이다. 통합연구학회 부회장, 기독교학문연구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Worldview Special

# 나이 들을 생각하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를 가슴에 품어야 할 때다.  
 그런데 여전히 아프다.  
 왜 무엇 때문에?  
 지혜와 추억을 그리고 희망을 넘겨주고  
 이제는 가벼운 걸음을 경어야 할 때인데.  
 성경은 '나이' 들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을까?  
 나이 들에 대해 질문해 본다.





## 다가오는 위기를 지혜롭게 준비하라

◎ 최윤식(아시아미래연구소 소장)

### 위험한 부모놀이를 하는 사람들

당신 가족은 내일 모처럼 시간을 내서 서해안의 가까운 섬에 놀러 가기로 했다. 두 아이는 가족 나들이에 대한 부푼 기대로 벌써 흥분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일기예보가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내일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할 확률 80%!”

이 상황에서 과연 태풍이 비껴갈 확률 20%에 베팅해서 섬 나들이를 강행하려는 부모가 있을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의 10년 미래를 놓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유명 인사와 집단들이 위험한 부모놀이를 하고 있다.

“괜찮아! 태풍도 우리는 비껴갈 거야, 과거에도 그랬거든.”

태풍이 상륙할 확률이 80%라면 섬 나들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집 안팎의 위험한 것들을

살피서 단단히 방비하는 것이 먼저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여 14년의 미래에 대해 예보를 해 주셨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태풍이 비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필자와 아시아미래연구소는 2009년 초부터 앞으로 10년 이상 반복적인 위기가 전 세계를 엄습하는 월드스패즘(World-spasm) 현상을 경고해왔다. 또한, 한국의 성장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면서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기관과 기업들에 역설해왔다. 또한, 2011년부터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차례로는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이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아시아의 금융충격이 현실화돼야 끝나는 사건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필자는 내심 이런 예측 시나리오가 틀리기를 바랐다. 그렇게 되면 전문 미래학자로서 필자의 명성에는 흠집이 생기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기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면서 언제나 마지막 결론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위협과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미래를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강조했다. 결국, 미래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요셉처럼 위기를 미리 알고 지혜를 발휘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한 발 앞서 바꾼다면 극심한 흉년이 오더라도 망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창 41:36)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성과 이익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건대, 최소 4~5년, 길게는 앞으로 2020년경까지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과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러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성과 이익 때문에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필자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건대, 최소 4~5년, 길게는 앞으로 2020년경까지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저성장과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치열한 생존경쟁을 치러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2016~2017년경에 첫 번째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2020년 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 때문에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1)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주도산업 2) 종신고용 붕괴로 말미암은 중산층의 몰락 3) 저출산과 고령화로 말미암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내수시장 침체와 경제성장률 저하 4) 부동산 거품 붕괴 5) 막대한 가계 부채의 위기 6) 이익집단의 극심한 저항과 포퓰리즘으로 인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가능성 7) 극심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8) 급격한 흡수통일의 위험.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가 오고 있다**

미래는 반드시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보아서는 안 되며,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현재의 저력으로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보는 객관적인 우리나라 10년의 미래는 최소한 정체 기이고 잘못된 대응을 하면 심하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겪게 될 대상은 작년부터 은퇴하기 시작한 1,640만 명에 달하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평균수명 100세의 시대와 맞물리면서 5천 년 역사상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다. 마치 7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의 극심한 7년의 흉년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6년 후인 2028년에 전체 인구의 반절 이상이 55세 이상 은퇴자들로 구성된다. 동시에 이들은 은퇴 후 50년을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의 유일한 희망인 국민연금은 2036년경이면 적자로 돌아서고 2047~2057년경이면 완전히 고갈상태에 빠진다. 이를 막는 유일한 길은 젊은이들의 세금을 40%까지 높이고,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금 수령액도 대폭 삭감하는 길뿐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은퇴자들에게 주고, 하나의 일자리를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누어 일하는 것뿐이다. 결국, 세대 간의 생존을 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요셉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라**

고령화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민 전체의 평균 생활 수준의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 내수시장 규모 축소, 사회 활력 저하, 저축률 하락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판더멘털의 약화, 농촌 및 중소도시의 경제 파괴 등의 문제를 지속해서 양산할 것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창 41:32-33)

필자가 지금까지 예측한 내용은 상당 부분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물론 기존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들은 기업들을 오히려 인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나 부동산 거품 붕괴, 막대한 개인부채 등의 문제는 거의 피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명철하고 지혜 있게 대응을 하여 망하는 수준의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1,640만 명에 이르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의 미래준비가 핵심적이다.



첫째, 다가올 극심한 장기적 흉년에 대비하도록 정신적 영적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사실 100년의 인생을 살다 보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앞으로 10년은 흉년의 시기일 뿐이다. 비록 7년의 흉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하면 더욱더 나은 미래, 더욱더 행복한 미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미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14년의 미래를 미리 알려 주신 이유다. 잠시 급한 일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둘째, 다가오는 흉년의 시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곡식의 1/5을 모아 놓아야 한다. 소비중독에서 벗어나 청지기적인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미래를 위해 모아 두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저금, 부채, 부동산 등의 자산을 재점검하라. 빛은 될 수 있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라. 보험이나 연금 등은 자산관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조정하라. 소비의 패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라. 아끼고 잘 관리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더불어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사용하라. 하나님은 세상에 유통되는 돈의 총량, 제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지구 위의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량이 되도록 하셨다. 단, 그것을 잘 분배하고 사용하는 책임을 천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특히, 크리스천의 사명이 되게 하셨다.

셋째, 흉년의 시대에 맞추어 살 수 있는 삶의 규모의 재정비, 새로운 일자리 준비 등 새로운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100세 시대는 인생설계를 2번 하는 시대다.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새로운 50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재설계하라. 이것이 야말로 은퇴 후 50년을 사는 시대의 최대 극복 거리가 아닌가! 이런 요셉의 지혜가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있기를 희망한다.



**최윤식** 전문 미래학자(Professional Futurist), 아시아미래협회장이며 Futures Group 회장,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장이다. 전경련 전략포럼 주임교수, 소망과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이며 저서로는 「2020년 부의 전쟁 in Asia(지식노마드)」 등 17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 건강한 삶, 행복한 노년

☉ 배성민(강동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 연장된 평균 수명, 행복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반세기 전만 해도 50세 정도에 머물던 평균 수명이 이제 의학과 경제, 교통, 식량개발 등 사회 전반의 발달에 힘입어 인류가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꿈의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처럼 연장된 평균 수명은 우리에게 절대적 행복만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흔히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 경제력, 건강, 친구, 배우자 등을 꼽는데 그중에서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한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일생 8~10년 정도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기간을 경험하며, 건강하지 못한 일상은 고통스럽고 때론 무력감

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등 인간의 삶의 질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에 평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근력 및 면역력 약화, 신경반응 둔화, 청각, 시각, 체온조절기능저하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요소 외에도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운동량의 절대 부족과 고지방 음식과 인스턴트식품의 과잉 섭취 등의 서구화된 식사습관 및 불규칙한 생활습관을 주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반면에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 건강부터 준비하라

운동의 효과는 예방주사와 같이 일생의 어느 시점에 한때 시행으로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껏 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부터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의 적절한 강도는 운동 중에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고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가 알맞은 것이며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의 정확한 의미는 “대근육을 활용한 신체활동”이며 체력은 “신체의 운동 능력”이다. 따라서 대근육을 활용한 신체활동을 꾸준히 해서 우리의 체력을 향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운동은 운동 중 산소 소비형태 및 강도에 따라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성 운동으로 나누어진다.

요즘 주변에서 운동복을 차려입고 열심히 운동하는 중 장년층의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생활화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공통점은 걷기나 등산과 같은 유산소운동이 대부분이고 정작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근력 운동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유산소운동이 접하기 쉽고 필요 이상의 지방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폐경기 이후의 뼈가 급속히 약해지는 여성과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근육이 위축되어 면역력이 감소하고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남성 모두에게 적절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무산소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에어로빅스(Aerobics)

에어로빅 운동이라 불리는 유산소운동은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서서히 소모하는 효과적인 운동이다.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시킴으로써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하고 강한 혈관조직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하면 운동부족과 관련이 많은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적절히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해소와 급속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걷기, 조깅, 줄넘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산, 계단 오르기, 에어로빅댄스, 마라톤 등이 있다. 한번에 30~60분, 일주일에 3~4회, 등에 땀이 나고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면 적절한 수준이다. 단 운동을 처음 하는 초보자면 하루에 10~20분씩 일주일에 1~2회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춰 점차 시간과

횟수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동 전, 후 운동 중에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은 지방을 연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땀으로 말미암은 체액 손실을 보충하여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노년기에는 젊었을 때보다 체온조절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하기 쉬우므로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마시는 물은 당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것과 탄산음료를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좋다. 요즘 광고에 많이 등장하는 스포츠 이온음료는 격렬한 운동 시 필요한 수분과 탄수화물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중, 노년층은 굳이 찾아서 마실 필요가 없다.



### 언에어로빅운동(Anaerobic exercise)

신체의 근육과 골격을 단단하게 해주는 근력부하운동을 무산소운동, 언에어로빅운동(Anaerobic exercise)이라 하며 산소가 충분치 않거나 고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숨이 차고 힘이 들어 길어야 2, 3분 정도밖에 지속할 수 없는 단기간 운동이다. 역도, 덤벨과 바벨을 이용한 근력 운동, 팔굽혀펴기, 턱걸이, 도약경기, 배구나 테니스의 서브나 스파이크 동작, 격투기 종목, 육상 100, 200m 달리기 대표적인 무산소운동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나이, 체력, 의학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종류를 선택하여 적절한 강도, 시간, 빈도의 무산소성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노년기 퇴화하는 근력의 유지 및 발달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우리 몸의 근육은 650개 정도이며 이 근육은 우리가 신체 활동 시 정교한 조화를 이루며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는 거미형, 또는 서양배 형태로 체형이 변해 간다. 또한, 우리 몸에서 근육이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자세가 불안정해지며 면역기능 저하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적정 이상의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체, 팔, 가슴, 복부, 등의 순서로 운동 숙련도에 따라 자신의 최대근력의 40~80%로 10회씩 3세트, 일주일에 3~4회를 시행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운동 전, 후에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잊지 말고 해야 하며 이 운동들은 부상 방지와 피로회복에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근력 운동은 운동 기구가 잘 갖춰진 체육시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과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몸을 탄력 있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침대에 누워 발을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훌륭한 복근운동이 되고 어깨너비로 발을 벌려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면 하체 근육이 몰라보게 단단해진다. 또한, 팔굽혀 펴기는 팔과 가슴근육을 발달시켜서 면역력을 증대 효과와 더불어 정신적인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두 손으



로 벽 밀기, 두 발 모아서 발뒤꿈치 들기 등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근력 운동이니 오늘부터 건강한 노년을 위해 실행에 옮겨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의 생활 행태는 과거와 비교하면 활동량은 줄고 영양 과잉 상태가 일반화되어, 활동에너지로 쓰고 남은 잉여에너지는 우리 몸에 지방의 형태로 고스란히 저장됨으로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비만의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올바른 식사습관은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충분한 식사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 식사를 위해 바람직하다. 같은 양의 식사를 섭취하더라도 포만중추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20분 이상 천천히 많이 씹으면서 섭취하면 대충 씹고 빨리 식사를 마친 사람에 비해 섭취한 열량

이 30%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 실험 결과로 증명되었다. 노년에는 소화 기능이 저하되므로 가능한 음식을 충분히 씹어 넘기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어주어 소화를 원활하게 해준다. 더불어 식사 때 여유를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양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화합과 친교를 더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식사횟수는 하루에 세 끼 이상을 적절히 나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젊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한 습관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체내 혈당 수치가 떨어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쉽게 쌓이게 된다. 그 결과 점심에 당분이 많이 함유된 간식을 하거나 한끼밖에 폭식하게 된다. 이러한 식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생체 건강리듬은 무너지고 만다. 특히 노년기엔 소화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므로 저녁에 과식을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활기찬 하루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청장년기에 간편함과 신속성으로 습관화되었던 즉석식품은 체내 영양 균형을 깨뜨리는 주범이며 과도한 육식은 12만km에 이르는 우리 몸의 혈관 곳곳에 콜레스테롤을 축적해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을 저해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적신히므로 과감히 단절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와 반면에 채소는 양에 비해 열량이 낮으므로 충분히 섭취하여도 비만의 걱정이 없으며 체내에서 소화흡수도 쉽고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미네랄 및 비타민이 풍부하므로 노년기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또한,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필요 이상의 음식섭취를 자제하고 장의 연동작용을 촉진하여 배변능력을 향상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항산화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식후보다 식전에 먹는 것이 전체 섭취 열량을 낮추는 방법이니 시도해 볼 만하다.

적당한 신체활동과 절제된 식생활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란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과목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적절하고 선호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육의 양식을 섭취한다면 노년을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 모두가 건전한 생활 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본다.



배성민 강동대학교 레저스포츠과 교수,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스포츠심리학 전공),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이사과 한국 대학 태권도연맹 이사를 역임하였다. 영동제일교회 청년부 부장으로도 사역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웨이트트레이닝 방법론」, 「헬스 앤 다이어트」 등이 있다.

# 시니어! 하프타임으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라

◎ 박호근(하프타임 코리아 대표)



시니어라는 단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로마 시대다. 로마군단에서 '가장 숙련된 용사'를 시니어라고 불렀다.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라는 물결 속에서 시니어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시니어라고 부른다.

정년퇴직 후 어느 노인이 반평생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뒤 그 동안 소홀했던 자기 충전을 위해 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 나간 곳은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원.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국내에 있는 하버드 대학원은 '하'는 일도 없이 '바'쁘게 '드'나드는 곳이다. 하버드 대학원을 수료하고는 동경대학원에 다녔다. '동'네 '경'노당이다. 동경대학원을 마치고 나니 방콕대학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에 '콕' 들어박혀 있는 것이다.

##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가?

“인생의 전반부가 강요받은 것이었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쇼웨너 주버프는 말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축구 경기에는 '하프타임' 즉, 작전타임이 있다. 전반전을 뚫 선수들이 휴식하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뚫 것인지 작전을 짜는 시간이다. 전반전에 밀리던 팀이 하프타임 후에 새로운 팀으로 변신해 경기를 뒤집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본다. 축구 경기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서 판가름난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 하프타임을 이용하여 전반전에서 저지른 실수를 되짚어보고 새 기술을 연마한 사람은 후반전에서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후반전에서도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일부는 아예 후반전을 뚫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매리 캐서린 베이트슨(Mary Catherine Bateson)은 이렇게 덧붙인다. “성인기는 구두점 한 번 없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한다. 흔히 말하는 시니어의 위기는 그 구두점을 찾는 것이고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 구두점이 바로 하프타임이다. 인생의 전반부가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의미 있고 멋지게 인생을 사는 것이다.

## 후반전은 무엇에 승부수를 띄워야 하는가?

후반전의 승리를 위해 자신만의 장점과 역량, 특기 등 남다른 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보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프타임을 맞이해 보면 자신의 특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

보물을 간직하고 있기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대단한 물건이라도 필요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보물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보물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것은 후반전을 맞이했을 때이다.

인생의 반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전반전이 힘들다면 먼저 당신이 깨고 변화시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라. “인생 2막을 여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의 승부를 걸 때가 있다. 지금껏 살아온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의 재능 창고에 어떤 보물이 들어 있는지 점검해 보라. 분명 전환점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시니어들은 인생의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일수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 움찔거리며 연신 브레이크를 밟으면 곡선 코스는 위험한 장소로 변할 수밖에 없다. 곡선 코스에선 적당히 속도를 올려라. 공연히 눈치만 보다가 뒤로 밀리거나 도태되고 만다. 주변이 위태로울 땐 멈추는 것보다 달리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





곡선 코스의 관건은 스피드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는 더욱 힘을 가하는 가속페달을 사용해야 한다. 한번 핸들을 꺾을 기회를 놓치면 다음 전환점이 나타날 때까지 얼마를 달려야 할지 알 수 없다. 요즘 중년이 좋아하는 노래가 자기 방식대로 살았노라고 하는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 '마이 웨이 My Way'다. 아마 그런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래를 위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능력과 잠재력을 찾아 개발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를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 단, 이때는 무슨 큰 발견이나 발명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성취해나가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최대한 만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니어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에너지를 재충전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고,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해왔는지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자.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직 기간이 전 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가꾸고, 또 자신을 키우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

과거의 꿈에만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미래를 더 소중히 여겨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으로 패배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소망을 하는 것이 성취감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미래를 위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능력과 잠재력을 찾아 개발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자신감과 긍정적 사고를 계속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 단, 이때는 무슨 큰 발견이나 발명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성취해나가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최대한 만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장의 히든카드**

우리에게는 두 장의 히든카드가 있다. 하나는 아직도 '창창한 미래'라고 하는 카드고, 다른 하나는 매일 같이 뽑아들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라는 카드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출발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인생에도 리허설은 있다'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후반전을 열었다. 당신도 이제 후반전을 위한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당신이 망설이고만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한다. 염려의 자리를 꿈으로 대체하라.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이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박호근** 하프타임코리아/워크비전센터 대표, 서울신대 신학과 졸업, 전 캐나다 국제예수전도단 스텝, 디렉터, 캐나다 토론토 두란노교회 담임 목사, 기독교실업인회 지도 목사, 서울적십자병원 원목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페르소나), 지구촌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전략기획자이자 컨설턴트인 댄 설리번(Dan Sullivan)은 "만약에 예순이 된 사람들을 몽땅 모아 놓고, 그들이 앞으로 25년에서 30년간 높은 생산성을 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퇴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retire'는 Re+Tire이다. 더 멀리 가기 위해 다시+타이어를 갈아 끼운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하프타임에서 인생 경기 전반전에 잘못 펼쳤던 전략과 전술들을 반성하고 나태한 습관, 마음에 박혀있던 독선과 편견, 증오, 오만, 미움 등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 2막의 후반전을 희망을 품고 춤을 추듯이 뭉 준비를 한다면 당신의 후반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의미 있고 성공적인 후반전이 될 것이다.

비록 인생의 전반전을 큰 성과 없이 보냈다 할지라도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부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전반전에 실패한 사람도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만 잘 가지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은 가능하다. 이것이 하프타임의 힘이다. 언제 하프타임을 가지든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하다. 인생의 전반전이 어떠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니어들이여 다시 인생의 승부수를 던져라!



# 4번과 23번

이제훈(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대학교회 담임목사)

모 일간지 신문기사는 우리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년 사이에 13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성인 563만 명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았다는 통계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곁들여 자살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도표로 보여주었는데 인구 10만 명당 한국은 31.2명이고 그동안 자살대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은 19.7명으로, 미국은 10.5명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 자살률이 안타깝게도 1등입니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 6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아슬아슬한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1년에 15,000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42.6명이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비극이 매일같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의 70~80%가 우울증을 지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통계 가운데 우리를 더욱 서글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80대 이상의 자살자가 20대보다 인구대비 5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노년에 우울증으로 힘든 삶을 보내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80대 정도의 연령층은 어림잡아 자식들이 적어도 둘 셋씩은 보통이었습니다. 많게는 네댓 명의 자식을 키운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게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거나 취직을 시키면서 삶을 견뎌왔던 분들입니다. 한국 경제성장의 이면에 이와 같은 노인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0대의 심각한 우울증은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에 의한 아픔으로 생겨난 것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어버이들이 자식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각한 상실감이 우울증이라는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 노인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멸시하여 심각한 죄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았던 동영상에 눈에 아른거립니다. 82세 된 아버지와 52세 된 아들의 대화를 소재로 한 동영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를 보고 묻습니다. 아들이 답을 합니다. “까마귀입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이 답을 합니다. “까마귀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네 번째 묻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인성이 높아집니다.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그러자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손 떼 묻은 작은 공책을 손에 쥐여 줍니다. 곁에 아들 양육일기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들이 돌을 지나고 까마귀를 보고 묻는 것을 신기해하며 까마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묻고 또 물었습니다. 23번째 묻습니다. 아버지의 양육일기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계속해서 까마귀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웠던 꽃들이 떨어진 자리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연록의 잎을 달아놓았듯이 우리 모두의 삶은 주름이 깊이 팬 부모의 가슴에서 피어난 꽃들입니다. 겨우 4번을 통명스레 대담한 응축함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부모공경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살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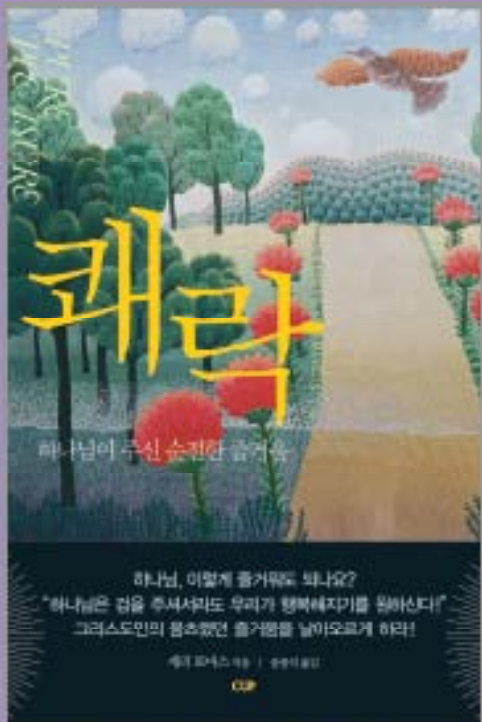


이제훈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대학교회 담임목사. 총회신학대학원에서 M-div와 풀러신학대학원에서 D-min. 학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대학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심각한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PURE  
PLEASURE



쾌락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  
쾌락을 좇아 사는 사람  
쾌락을 엉뚱한 데서 찾는 사람  
쾌락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이런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그래서 당신이 읽어야 할 책!

개작 제이스 지음 | 글꼴의 옮김 | 신역면 134면 | 15,000원

쾌락이 흘러넘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한 삶이다

### 한 평생 창조론 연구에 매진해 온 양승훈 교수가 직접 들려주는 창조론 동영상 강의



6장의 DVD 총 24개 강의로 구성된  
1셋트가 33,000원



**양승훈 교수**  
현 VIEW연구부 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 교수 역임  
**학력**  
경북대학교 사범대 물리교육과(BA)  
KAIST 물리학과 반도체물성(MS, Ph.D)  
위스콘신대학 과학사학과(MA)  
위튼대학 신학과(MA)  
**저서**  
『다중격변창조론』 『생명의 기원과 외계생명체』 『창조와 격변』 『창조론 탐구학습』 『창조론 대강좌』 『기독교적 세계관』 『그리스도인으로 공부할 한다는 것은』 『나그네는 집이 가깝습니다』 『물에 빠진 오리』 등 다수

구입문의: 도서출판CUP T.02745-7231 F.02745-7239 E-mail.cup21th@paran.com

WORLDVIEW



보내는 사람 \_\_\_\_\_  
주소 \_\_\_\_\_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

제40335호  
발송유효기간  
2012.5.1~2014.4.30  
용산우체국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월드뷰 담당자 앞

□□□□-□□□□



## CMS 출금이체 신청서

신청이정보	상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 메 일	출금일자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월납입일	매월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

### 【 CMS 출금이체 약관 】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주시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까.
-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계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여 출금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월드뷰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읽고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독자 후기를 보내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 6월)

### 회원후원

**2천5백** 김민지, 박진호, 천하은,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찬호, 김창현, 임고운, 정필규,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강동훈, 김태우, 김희원, 노승욱, 백경은, 백선희, 유경상, 정경식, 정세열, 진성자, 최승오, 최원길, 한민재, 한진영, 황보남이, **5천** 고은하, 구성덕, 권명중, 권지연, 길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봉우,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승태, 김영윤, 김정명, 김정성, 김정준, 김준, 김준희,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해창, 김효태, 마민호, 박광재, 박기연, 박상균, 박상균,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종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민화,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은미, 이은순, 이인수, 이진영, 이한길, 이행연, 이향숙, 임선제, 임재영, 임준택, 임형준, 장옥경, 장현일, 전정진, 전중화, 전중국,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유, 한배신, 한정호,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고상섭, **1만** 강은정, 강효식, 고은님, 고현경, 권민규, 권성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광순, 김동우,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세령, 김세원, 김세중, 김영옥, 김영화, 김원, 김은덕, 김은순, 김은혜, 김정란, 김정일, 김경호, 김중국, 김중훈, 김진아, 김홍섭, 김효숙, 남서희, 류화원, 명윤수, 박강국, 박대원, 박두한, 박시운, 박유진, 박종원, 박중훈, 박창우, 박한배, 박혜경, 서화진, 소중화, 송미정, 송종철, 신상형, 신성혜, 신현주, 신혜용, 신호기, 안석, 양병국, 양성만, 양성일, 양행모, 오흥철, 우관석, 원호영, 유건호,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윤매옥, 윤상현, 이경숙, 이관후,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수, 이명현, 이문원, 이상수, 이상수, 이상엽, 이시영, 이신영, 이언구, 이윤석, 이윤재, 이은자,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지연, 이한길, 임일택, 임지연, 장승재,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태수, 정은희, 정정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용현, 주성철, 최삼열, 최성두, 최영찬, 최용준, 최정일, 최진우, 최한빈, 추진연, 한인관, 한혜실, 한화진, 허찬영, 허현, 홍선호, 홍철의, 황태연, 황해정, **1만5천** 김선찬, 김효순, 백동희,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김옥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박영혜, 박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안용준,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전광학,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승남,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박연호, 서성록, 오익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창규, 이현욱, 임희옥, 장수영, 정동섭, 정은애, 조무성, 차유림, 추태화, 황의서, 황정진, **4만2천** 유요한, **5만** 김성락, 김시호, 서진희, 손봉호, 손봉호,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희영, 조성태,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규, 김석호, **10만** 김승태, 김원수, 김의원, 김태환, 박상은, 양인평, 전광식, 한정화, **12만** 안경환, 임동민, **15만** 양승훈, **20만** 차명실, **30만** 김승욱, **400만** 조성표,

### 기관후원

**1만** 개명교회, **3만** 두레교회, **5만** 개명교회, 성덕중앙교회, 예심교회,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10만** 다은공동체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나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신성교회, 안락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군산성광교회, 국군중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500만** (주)엘비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방문하시거나 CMS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월드뷰』의 비전에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빛으로 채운 사랑

오늘 하루는 어린시절의 애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잊혀져가는 감성과 지난 추억들이  
한편의 시가 되어 내 머리속을 스쳐지나 갈 때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빛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

아이가 성장해 지금 이 시간들을 돌아 볼때에는  
사진속에서 말하고자 했던 사랑과 빛에 대한 생각들을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꿈을 꾸고 있는 작은 소녀  
어여쁜 예진이에게.

## 정일권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 초상사진과 졸업, 도쿄디자인전문학교 비주얼디자인과 졸업  
블로그 <http://blog.naver.com/sg80350>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숫자나 프로그램에 노인이 등장하는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인기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만 보더라도 1편과 2편에 등장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캐릭터가 3편에 와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를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 다시 <장수만세>를 꿈꾸다: 대중문화가 그리는 노년의 삶

<장수만세>라고 아주 오래전에 방송되었던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온 가족이 노래자랑을 하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펼치면서 한껏 잔치 분위기를 냈던 오락 프로그램이었지요.

◎ 박진규(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장수만세>라고 아주 오래전에 방송되었던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온 가족이 노래자랑을 하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펼치면서 한껏 잔치 분위기를 냈던 오락 프로그램이었지요. 이름만큼이나 장수했던 이 프로그램은 70년대 동양방송(TBC) 라디오에서부터 출발해서 TV 프로그램이 되었고, 1980년 TBC가 KBS에 합병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방송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노래를 하면 아들, 손자, 며느리도 함께 불러요~”로 시작하는 로고송이나 진행자 황인용 아나운서의 인기도 대단했지요. 어릴 적 함께 사시던 외할머니와 함께 꼬박꼬박 챙겨보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장수(長壽), 즉 오래 산다는 것이 큰 소망이고 자랑이던 시절, 이를 욕망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꽤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프로그램 속에 비친 가족은 언제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중심에 있었고 그 주변에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그분들을 향해 존재하는 것처럼 비쳤다는 점입니다. 노인이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었던 몇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회 전체의 고령화로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이제는 장수 자체가 선망이나 축하의 대상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만큼 노년기에 들어선 이들에 대한 주목이나 관심도 많지 않습니다. TV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장수만세>와 같이 인기를 얻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숫자나 프로그램에 노인이 등장하는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인기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만 보더라도 1편과 2편에 등장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캐릭터가 3편에 와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령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를 생각하면 충분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속에 노년의 존재가 점차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일까요? 세대 간 대화가 단절되고 그에 따라 서로의 공감대가 없어진 때문일까요? 과거의 기술이나 원리, 삶의 방식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여전히 그것들을 붙들고 새로움을 거부하는 “고집스럽고 답답한 세대”라는 젊은 세대의 인식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의 미디어 구조를 볼 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노년층이 주된 소비자 집단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미디어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광고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비를 대는 기업이 목표하는 잠재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디어의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점점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노인은 쓸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거나 소비를 많이 하는, 즉 매력적인 소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년층 대상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노년층을 상대로 한 틈새 시장을 노리려는 기업과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블에 “실버TV”라고 노년전문 채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인지도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우리의 대중문화가 10대나 2~30대 취향에 쏠리고 이로부터 소외되는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노년층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즉, 노년기를 위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적은 건 단지 우리의 인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진지하게 다루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가능성마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미디어가 운영되는 구조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드라마나 영화, 음악, 광고 등 대중문화에 노년은 드문드문 등장합니다. 아마도 TV에 노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기는 명절일 겁니다. “추석 특집극”, “설날 특집극” 등으로 이름 붙여진 드라마의 단골 소재는 나이 든 부모의 소외감일 텐데요.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놓고 다투는 자식들 틈바구니에서 부모가 느끼는 허탈함, 평생 가족의 뒷바라지만 하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싸늘한 반응, 바깥일에만 몰두하고 권위적이던 아버지가 자식들과 대화의 끈을 상실한 모습 등은 명절 때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에서 노부모는 대개 시골에서 어렵게 살지요.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자식들의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모습은 광고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여보, 아버님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라는 카피로 유명한 보일러 CF에 나오는 노부모는 고향에 살면서 자식들의 도움이 절실한, 뭔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 CF는 후에 다른 광고들이 패러디하기도 했는데요. 영상통화가 가능해지면서 한 이동통신사는 아들과 영상통화 하는 노부부를 등장시켜 “아범아, 우린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고장 난 TV 수상기를 툭 치고, 물이 넘쳐 흐르는 세탁기 앞에서 너털웃음을 웃는 CF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4세대 통신망 LTE를 그 기능만큼 사용하지 못해 자식들에게 문자만 날리는 부모의 모습을 담은 CF가 나오기도 했지요. 부모 자식 간 소통의 부재를 꼬집는 것일 수도 있지만, 노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마케팅 기법인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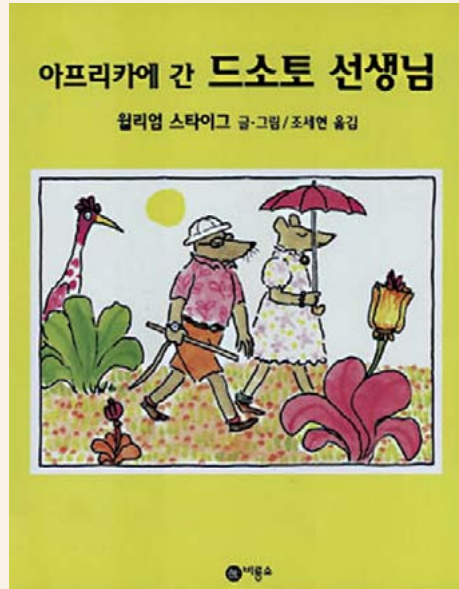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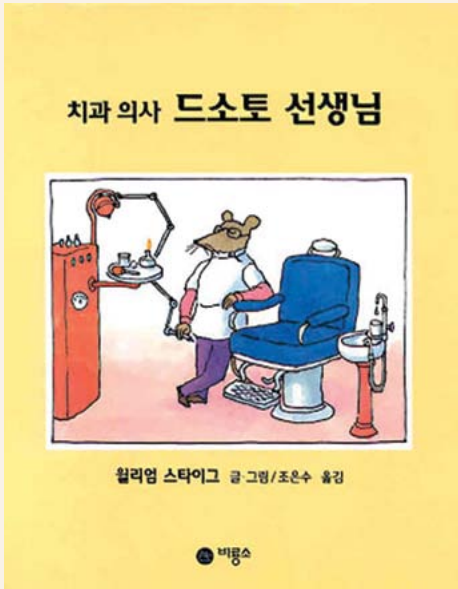
흔치 않지만, 대가족을 그리는 드라마가 나오면 어김없이 노인이 등장합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였던 <오작교 형제들>이나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도 가족의 가장 자리에는 할머니가 계셨지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에서 노인은 화목한 가정을 모사하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정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노년기를 새롭게 그린 드라마도 있었지요. 위에서 언급했던 <하이킥> 시리즈의 1편과 2편은 노인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1편에서는 “야동순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울 때도 있지만, 생기가 넘치는 할아버지와 언제나 엉뚱하면서도 자기감정에 솔직한 할머니가 극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2편에서는 사별하신 할아버지의 당당하고 용감한 연애담이 전개되었습니다. 2008년 방송되었던 <엄마가 빨났다>에서도 여든이 넘는 할아버지와 칠순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황혼 로맨스를 다뤘었는데, 당시 이 둘의 키스신은 큰 화제가 되었지요(그리고 보니 이 모든 역할에 지금도 많은 작품에서 노배우의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는 이순재 씨가 있었네요). 여기에 나온 노인 캐릭터들은 모두 뭔가 어수룩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언제나 자신의 삶에 주체적인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장수만세>와 같은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삶을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다루고, 노인을 스스로 삶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그려가는 콘텐츠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사는 분들도 대중문화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참, 그러기 위해선 지금처럼 상업성에만 의존하는 대중문화 구조 자체의 변화가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네요.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과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

윌리엄 스타이글 저  
우미경 역  
시공주니어 출판

현은재(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나는 책을 읽을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 문장은 스티븐 로서 피셔가 쓴 읽기의 역사의 부제로서 독서에 몰입한 순간의 희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라면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이처럼 책 읽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책의 백성’인 기독교인 가정에서 독서습관을 키우는 것은 신앙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책 읽기를 즐기도록 가르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면, 독서를 즐기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의 독서 행위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문학 용어는 ‘상호텍스트성’입니다. ‘상호텍스트성’이란 단어 그대로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상호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문학 경험은 다른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는데 토대가 되며 그것은 또 다른 텍스트를 조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텍스트성 이론은 독서의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으며 왜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책을 찾고 읽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왜 책을 멀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독자적인 그림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 그림책 작가들은 같은 이름의 인물을 그림책 제목에 넣거나 같은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그림책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다. 그러나 윌리엄 스타이그는 오직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과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며, 생쥐가 캐릭터로 등장하는 작품은 이 두 권과 지난 호에 소개했던 「아모스와 보리스」를 합하여 세 권입니다.

이 작품들의 발표 시기를 보면 「아모스와 보리스」가 가장 먼저, 1971년에 출판되었고 그로부터 11년 후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이, 그리고 다시 10년 후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와 보리스」가 물에 사는 생쥐 아모스와 물에 사는 고래 보리스가 바다에서 만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나머지 두 작품은 결혼한 드소토 선생님이 부인과 함께 치과 의사로서 겪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은 아주 이를 잘 고치는 의사이며 그의 부인은 그의 조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원에서는 작은 동물들뿐 아니라 돼지나 소와 같이 드소토 선생님보다 훨씬 크기가 큰 동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소토 선생이 도르래를 타고 환자 입까지 올라가면 부인이 아래에서 도르래 끈을 잡아당겨서 드소토 선생이 공중에 매달려 있게 합니다. 그 치과에서는 일의 성격상 육식 동물들은 치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어느 날 치과 건물 밑에서 여우가 치통을 호소하자 드소토 선생 부부는 그를 치료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육식 본능이 살아난 여우는 치료가 끝나면 생쥐를 잡아먹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속셈을 눈치챈 드소토 부부는 그 다음 날 치료를 마친 후 여우의 이빨에 접착제를 붙여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 이야기는 “백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최고의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이 어느 날 아프리카의 무담보로부터 전보를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보의 내용은 코끼리 무담보가 자신을 치료해 주면 큰 사례를 하겠으니 당장 와달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드소토 선생님과 부인 드보라는 이 제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곧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은



바다여행을 즐기면서 배의 갑판에서 날치랑 물을 뿜어내는 고래를 보기도 합니다. 무담보 코끼리를 만나 치료를 시작한 드소토 부부가 밤이 되어 무담보 부인의 바늘꽃이에서 잠을 자는 동안 흥키통크라는 붉은색 원숭이가 드소토 선생님을 납치해 밀림속의 새장 안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는 전에 많은 이들 앞에서 무담보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 복수하려고 버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드소토 선생님은 온 힘을 다해 새장에서 탈출하여 무담보를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치료비를 두둑이 받은 드소토 부부는 탈출하다 다친 드소토 선생님의 다리가 다 나으면 멋진 세상을 좀 더 보러 다니기로 합니다.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과 「아프리카로 간 드소토 선생님」이 두 작품에서 드소토 선생님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우를 치료해주고 아프리카 먼 곳까지 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의식이 투철한 의사이며 그의 아내 드보라는 드소토 선생님의 훌륭한 조수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드보라가 남편 이상으로 모험심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여우의 치료를 망설이는 드소토 선생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여행에도 먼저 나섭니다. 그리고 치료비로 멋진 세상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 것도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보리스」를 읽은 독자는 ‘드소토 선생님’과 ‘아모스’가 웬지 별개의 인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공이 생쥐라는 공통점 외에도 세 작품 간의 암시적인 상호 연관성 때문입니다. 세 작품을 다 읽은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혹시 아모스가 성장하여 치과의사가 된 것은 아닐까? 왜 아모스가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 그는 보리스와의 우정을 통해 성숙해졌으며 그럼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첫 페이지에서 드소토 선생님은 전보를 받고, 책장을 넘겨 펼친 면의 왼쪽 페이지에는 드소토 선생님의 답장 편지가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서 드소토 부부는 배

의 갑판에 앉아 지나가는 고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지 분배는 드소토 부부가 전보를 받고 곧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렇게 빨리 아프리카 여행길에 올랐을까요. 혹시 오래전 자신이 완성하지 못했던 바다 여행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영원히 잊지 못할 친구 보리스와의 추억 때문은 아닐까? 혹시 두 부부가 바다 여행 중에 바라보았던 고래는 보리스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모스와 드소토 선생님, 그리고 무담보 부부와의 관계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무담보 부부가 오래전에 아모스의 청으로 보리스를 구해준 그 두 코끼리가 아닐까요? 드소토 선생 부부가 전보를 받고 곧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이유도 많은 액수의 치료비 때문이 아니라 코끼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렇듯 「아모스와 보리스」를 읽었던 독자는 이 작품을 읽지 못한 독자와는 다르게 드소토 부부의 출발 이유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와 보리스」를 읽지 못한 독자들은 드소토 선생이 두둑한 치료비 때문에 아프리카로 떠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책의 독자들은 드소토 선생님의 여행에 내포된 다른 이유와 더 풍부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 읽기 행위는 문학작품의 의미 형성에서 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린 유아들도 그림책 간의 상호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유아들이 발견하는 텍스트 간의 관계는 그들의 경험과 언어의 제한 때문에 성인과는 다를 수 있겠지요(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성인들조차도 그림책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호텍스트성을 발견하고 그림책을 즐기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아가 그림책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사랑하고 나눌 줄 아는 성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흔히들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곁에서 책 읽기의 전략을 가르친다면 그 즐거움은 훨씬 더 풍부해지겠지요.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그림책이 닫힌 텍스트가 아니라 열린 텍스트임을 깨닫게 되다면 우리는 어린이와 함께 이런 저런 상상을 하면 즐거워할 수 있겠지요. 다시 보리스를 만난 드소토 선생님은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무담보가 준 치료비로 세계 여행을 떠난 드소토 부부는 어떤 일을 만났을까요? 드소토 선생님을 납치해서 무담보 코끼리를 골려주려던 붉은색 원숭이 흥키통크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의 집, 혼합재료, 100x100, 2012년

## 최순민, 영원한 안식의 집

서성록(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서양화가 최순민은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팔레트서울 갤러리, 현대H갤러리, 인사갤러리, 그림손갤러리, 아산갤러리 등에서 모두 14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국내외에 열린 주요 아트페어 및 단체전에 140여회에 참여하였다.

장난감같이 생긴 아기자기한 모양들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다. 그안에는 빨강과 파랑과 노란 색깔들과 온갖 화려한 무늬들이 장식되어 있다. 금속조각이나 인조보석들로 치장한 최순민의 그림을 볼때면 심중팔구 두손에 과자를 가득히 움켜쥔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런 행복감을 떠올리게 한다.

최순민이 작업의 레퍼토리로 삼아온 것은 다름 아닌 집이다. 힘찬 필선이 넘실거리는 수목화풍의 회화작품을 해오다 2005년 이후에는 집의 이미지만을 집중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집만큼 든든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루 종일 세파에 시달리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곤이 싹 가시고 안도감을 갖는다. 이런 집에 대한 인식은 그의 작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편안함을 주며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예쁘고 아담한 집이 그의 작품에서 풍기는 이미지들이다.

이전에도 집을 그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일제때 활동한 김종찬의 <토담집>(1939)은 쓰러져가는 흙으로 된 집을 보여준다. 말이 집이지 실상은 초라한 움막에 가깝다. 장욱진의 <마을>(1956)에도 집이 등장한다. 두 채의 집이 그려져 있는데 창문을 통해 한 사람씩 얼굴을 내밀고 있다. 한 사람 살기에도 벅겁게 느껴지는 자그마한 집을 표현하였다. 향토적인 화풍을 선보인 박수근도 집을 자주 그린 편이다. 시골의 기와집과 초가집을 가리지 않고 그렸는데 논밭이 딸려 있거나 마당에 장독대가 있고 닭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분위기를 잘 묘출해냈다. 이렇게 작가마다 집을 대하는 시각이 다르며, 화풍에 따라 특색있게 조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순민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 언뜻 보기에는 밝고 화려한 레고로 만들었거나 장난감같은 모양이다. 종래의 화가들에 비해 서술이 배제되어 있고, 선과 면으로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집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모양이 집과 유사한 오각형이며 제목으로도 그것이 '집'이란 사실을 밝히

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작품은 집의 단면만 크게 확대하거나 실선으로 볼록하게 처리한 것, 심지어는 철선을 용접한 경우도 있다. 다양한 변형을 피하지만 대체로 그의 집모양은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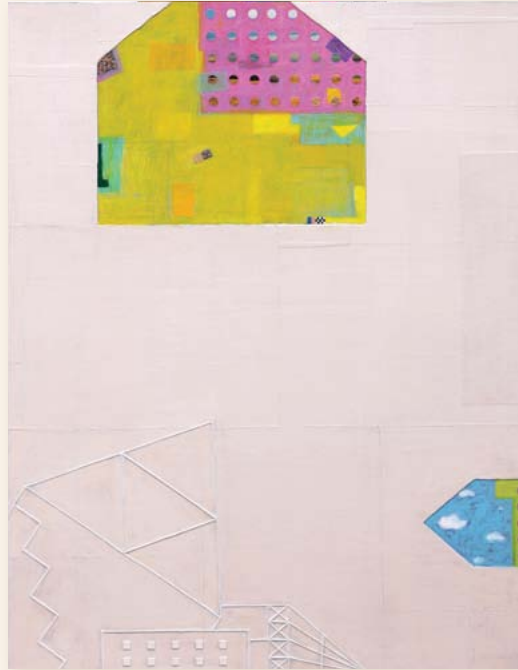
많은 집 가운데서도 작가가 형용한 이미지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이다. 작가는 스트라이프, 별, 도트와 같은 여러 장식과 칼라풀한 색지 및 인쇄물을 이용해 집을 꾸민다. 영롱한 인조보석은 그림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데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오는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한다. 작가는 애당초 집의 구조와 세부를 재현하는데 신경을 쓰기보다 집의 이미지, 즉 집이란 어떤 곳인가를 더 강조하려고 애쓴 모습이다. 세모의 지붕과 둥근 돌기둥, 그리고 본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인다. 별이 빛나는 하늘에 세워진 으리으리한 도성(都城)같은 곳도 있다.



Gift, mixed media, 100x100, 2009년

작가는 왜 이처럼 '아버지의 집'을 정성을 다해 꾸몄을까? '아버지의 집'이 대릴같거나 화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세삼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집'이란 돌이나 목재나 대리석으로 만든 가시적인 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란 상징성을 띤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혼합재료, 165x126, 2009년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감하며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천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만든다.

맥스 루케이도(Max Lucado)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연구해야할 신적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우리가 머무는 곳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스러운 분으로 인식할 뿐 그분과 함께 산다고 생각지 않는다. 다윗은 이런 우리의 인식에 일침을 가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그의 품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만한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도 위로도 없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부와 향락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서 무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나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처럼 부질 없는 것이다. 행여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사업의 실패로 낙심할 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어떨까? 성경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고 말한다. 우리 존재의 심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사랑이 심겨진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은 끝없는 기쁨과 새 힘의 출처가 된다.

오늘도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최순민의 작품은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준다. 그의 집은 광채로 번뜩이고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다. 비록 작은 캔버스이지만 그속에는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요 4:14)을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태연한 척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영혼이 새 기운을 얻고 싶을 때 ‘하나님의 집’만큼 좋은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품안에 있을 때에만 맘 편히 안식할 수 있다.

그의 그림은 마치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편 23편에 펼쳐진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여호와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고요에 잠기게 하신다. 단순히 집을 제시하였을 뿐이지만 작가는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에서 있을 때처럼 만족감과 행복감을 전달한다. 그분의 집에 들어가 내내 살기를 바라는 마음,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의 정조(情操)를 실어 넣음을 뒷받침해준다.

사실 우리가 창조주의 영화로움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렵다. 색과 리듬감만으로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적 상태를 시각언어로 바꾸는 제약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럴수록 조형언어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화면을 들여다보면, 흰 바탕은 단아하면서도 포근하다. 질료감을 주려고 바탕에 하드 보드를 깔고 다시 한지를 서너 번 입히고 그 위에 다시 페인트를 칠하거나 돌가루를 뿌려서 견고한 바탕의 느낌을 살려냈다. 말하자면 재료의 고유한 맛을 살려내면서 평면을 잘 가다듬어 내밀성을 잘 간직하도록 한 셈이다. 그리하여 배경의 충실함을 통해 주제의식이 분명해지도록 했다.

작가는 은밀한 마음의 집을 보여준다. 그안에서 영원한 기쁨의 모형을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조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전에는 한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자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영원한 행복’과 ‘끝없는 안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즐거운 분이시다.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관대함은 그분의 무한한 기쁨과 깊이 이어져 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은 자아내시고 바깥으로 유출시키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사랑을 제공받는다. 최순민



Gift, 혼합재료, 95x110, 2010년



서성택 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이 아버지의 집을 지극히 사랑스럽고 정성스럽게 꾸민 것은 실제로는 집 주인의 풍성한 사랑과 관대함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근래에 작가는 집 시리즈에서 정물로 소재를 약간 넓혀가고 있다. 네모난 종이 조각으로 구성된 모자이크로 바꿔 종전보다 훨씬 장식적인 느낌을 더하였는데 화분에 꽃과 식물이 자라는 것이라든지 물고기와 빵을 수북이 담은 광주리를 표현한 것 등 조밀한 짜임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들에 <선물>이란 타이틀을 붙였다. 이미지는 종래와 다르지만 사실 작품상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아버지의 집>이 창조주의 영화스러움을 나타냈다면, <선물>은 은혜 충만한 세상을 나타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상기하면 모든 게 '선물'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이처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베푸신 것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작가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그림에 담았다. 최순민의 그림에는 빵이든 열매이든 식물이든 풍족하다. 음식으로 치면 '성찬'이요 꽃으로 치면 '백화만만산 동산'이다. 화려한 색채와 모양새만을 보고 장식성 높은 정물로 여긴다면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음에 그득한 충만한 은혜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가 아닐까 싶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가슴에 멍울이 든 우리에게 '영혼의 만나'를 제공하고 계심을 알게 해준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온갖 귀한 것으로 아들을 맞았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선 누군가를 위해 환영잔치가 벌어지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흘러넘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선물이요 아들에게 아버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작가는 이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 2012년 Christians in Political Science 주최 학술 대회를 다녀와서

◎ 신찬웅(미 시라큐스 대학 정치학 박사 과정 재학)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 보스턴 근교 고든 대학 (Gordon College)에서 열린 미국정치학회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산하 기독교 정치학자들의 모임인 <Christians in Political Science> (이하 CPS)의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학을 공부해오면서 늘 나의 신앙이 나의 학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고민해 오던 내게, 기독교 정치학자들이 모여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는 장이 열린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1991년 미국내 소수의 기독교 정치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CPS는 회원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도우며 회원들 간의 교제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권력과 정의: 정치 질서에 대한 관점들 (Power and Justice— Perspectives on Political Order)>이었다. 첫날 고든 대학 학부생들의 논문 발표에 이어, 국제 군사 문제와 미국 외교정책 전문가이며 현재 듀크 대학 (Duke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인 피터 피버 (Peter Feaver)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학술대회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예년과는 달리 이번 대회에는 모두 다섯 번의 기조 강연이 마련되었는데, 모두 대중에게 개방되어 CPS 회원뿐 아니라 기독교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었다. 기조 강연자들은 모두 신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경험적 혹은 규범적 연구를 해 온 기독교 학자들로서, 비단 정치학자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피버 교수를 포함, 휘튼 대학 (Wheaton College)의 에이미 블랙 (Amy Black), 워싱턴 주립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의 앤소니 길 (Anthony Gill) 교수 등은 모두 잘 알려진 정치학자들이었지만, 둘째날 저녁 기조 강연을 맡은 고든 대학의 새 총장 마이클 린지 (Michael Lindsay) 박사는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 엘리트들에 관한 연구로 잘 알려진 주목받는 젊은 사회 학자이며,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예일대학 신학교의 미로슬라브 볼프 (Miroslav Volf) 교수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신학자 중 하나이다.

대회 중 다섯 번의 기조 강연 외에 약 26개의 패널과

워크숍이 열렸는데, 그 주제들은 미국 정치, 비교 정치, 국제 정치, 정치 사상, 그리고 정치 교육과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학의 세부 분야를 모두 아우를 정도로 매우 다양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내가 소속되어 논문을 발표한 <종교의 자유> 패널로부터, <어거스틴과 복음주의 정치사상>, <종교와 미국 대통령제>, <세속 대학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 <개발도상국의 정치>, <정의에 대해 성경적으로 사고하기>, <분쟁해결에 대한 신앙적 접근> 등의 주제 아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길 교수는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그의 기조 강연에서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이론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변호하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비니즘(Neocalvinism) 전통에 바탕을 둔 다원주의 이론을 옹호하는 참석자들과의 논쟁이 있었다. 정치적인 견해가 양극화되고 정치적인 언어가 더욱 거칠어져가는 현실에서 “원칙은 굳게 지키되 정책에 있어서는 유연할 것”을 주장한 피버 교수의 기조 강연과, “은혜(grace), 겸손 (humility), 이성(reason)에 바탕을 둔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촉구한 블랙 교수의 주장이 참으로 중요하며 먼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모든 내용은 “더욱 세속화되고 다원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비기독교인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공공선을 위해 일할 것인가”라는 이 한 문장으

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종교의 다원화와 정치화 현상은, 국내 및 국제 정치적으로 종교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장 시급한 정치 문제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 볼프 교수의 기조 강연의 주제였던 “배타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적 다원주의에 합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시의적절하고도 절실했다고 생각된다. 정치의 세속화 (정치영역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배제시키는 것)와 정치적 배타주의 (한 가지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정치를 개인의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라는 두 가지 해결책을 거부하면서, 볼프 교수는 미국 역사 초기 종교 자유 정착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로저 윌리엄스 (Roger Williams)의 예를 들어 종교적 배타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도 드러났듯이, 그것이 구체적인 정치 문제에 있어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곧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성결혼 문제의 경우, 과연 어디까지가 타협 불가능한 “종교적”인 영역이며 어디부터가 타협 가능한 “정치적”인 영역인지에 대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정치적 임무이다”라는 재세례파 (Anabaptist) 계열 신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주장은—비록 세상과의 분리는 그들의 해결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정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 CPS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원하시는 분들은 CPS의 홈페이지 <http://www.christiansinpoliticalscience.com> 를 참고.

가족학 이론 중 가정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가족생활주기 이론(Family Life Cycle Perspectives)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에블린 듀발과 루벤 힐에 의해 개발된 이론으로 가족도 개인처럼 시간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함을 주장하면서 발달단계(stages)에 따른 가족의 과업(tasks)을 논의하고 있다. 가족은 가족 형성기를 시작으로 부모 전이기,



학령 자녀기, 자녀 청소년기 등의 발달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현재와 미래의 최적의 발달을 위해서 성취하여야 하는 과업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발달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이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예방하게 도와주고 현재와 미래의 가족의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가족 학자들은 가족발달단계를 가족 형성기, 부모 전이기, 자녀 학령기, 자녀 청소년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가족 형성기**

결혼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에의 적응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 앞에 있다. 이 단계에서는 부부가 모든 영역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시작하는 시기로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적응하고 또 앞으로 출산할 자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미국의 학자들을 따르면 부부에게 12가지 영역에서의 결혼적응과업, 즉 하나 되어야 하는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감정적 만족 및 지지, 성적인 적응, 개인의 버릇에의 적응, 성 역할, 가정경제, 직업, 친구 및 여가 생활, 가족과 친지, 의사소통, 부부간의 역할과 의사결정, 갈등 및 문제 해결, 그리고 가치관(신앙)이다. 특히, 결혼 후 5년 이하의 부부간에 이혼율이 높다는 연구보고를 비추어 보았을 때 신혼기와 그다음 단계인 자녀 출산기의 가족이 다양한 영역에서 연합하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에 적응하는 것을 적극 돕고 지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정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모 전이기**

자녀 출산으로 부부생활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로 새로운 가족체계를 부부가 수용하고 부모 역할을 시작하는 단계다. 자녀 출산은 남편과 아내의 자아정체성에 큰 변화를 주고 가족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자녀양육이라는 엄청난 과제 앞에서 부부관

계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 시기의 부부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애정의 표현, 긍정적인 의사소통, 부부만을 위한 시간 등-이 급격히 줄어들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한다. 남편은 집안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지만, 여성은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과 시간과 에너지를 남성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고 양육의 어려움으로 결혼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자들은 부부가 이 시기를 지혜롭게 지나가는데 남편의 역할을 중요하게 논의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이며 가사 및 돌봄노동을 융통성 있게 배분할 때 아내의 우울감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낮아지고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부부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이고 남편이 부부관계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 학령기**

자녀가 신체적, 지적, 언어적, 심리 사회적 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다. 유치원 및 학교적응이 중요하게 대두하는 시기다. 자녀는 언어의 발달과 사고 능력의 향상으로 가족의 의사결정-어디서 무슨 음식을 외식할 것인가,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점점 높게 내게 되고, 자신의 선택이 가족결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엄마가 밖에서 일하더라도 주된 양육의 책임자라면 자녀에 관한 선택 및 결정에서 엄마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자녀는 엄마와 자연스럽게 친밀하고 동맹관계가 형성됨을 연구들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와의 대화에서 서서히 소외되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간에 미묘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부모는 자신의 뜻을 굳히기 위해 자녀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고, 자녀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머니 아빠를 끌어들이

다. 자녀의 학교적응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은 재고의 여지가 없는데, 연구들은 부모와의 신뢰에 기반을 둔 애착 관계의 형성 및 유지, 부모의 따뜻함과 통제가 균형 있게 사용되는 부모 노릇, 그리고 가족 내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자녀가 학교적응을 잘 이뤄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자녀 청소년기**

부모가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서 겪는 변화에 잘 대응하고 이해하며 자녀가 성인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청소년 자녀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부모보다는 친구들이 중요하고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생기는 시기이다. 이 전에는 자녀가 순종적이고 부모를 거스르는 경우가 없었지만,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자녀는 부모가 서서히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기 시작하고, 많은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한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을 벗어나 자녀를 격려하고 비판을 피하며 자녀를 존중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자녀의 정체감 형성에 중요하다. 특히, 가족들 간의 경계나 규칙에서 너무 뻑뻑하기보다는 융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서구와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2011년 여성가족부의 자녀의 발달과 아버지 역할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 중 자신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한 학생들은 긍정적인 내적 발달-자아존중감-에서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내적 발달-우울증-에서 낮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한 자녀는 긍정적인 외적 발달-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서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외적 발달-문제행동-에서 낮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연

# 가정사역에서 가족생활주기 이론의 활용

◎ 김성은(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 교수)

가족은 가족 형성기를 시작으로 부모 전이기, 학령 자녀기, 자녀 청소년기 등의 발달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현재와 미래의 최적의 발달을 위해서 성취하여야 하는 과업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족발달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이 미래에 겪을 수 있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예방하게 도와주고 현재와 미래의 가족의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구결과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어서 부모로부터 분리를 시도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크고 싶어하는 시기임에도 아버지가 자녀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시기에 부모 자녀 관계가 힘들더라도 아버지가 지속해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에는 부부가 자녀의 교육에 더 집중하면서 부부관계를 가꾸고 기르는데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부부의 자녀 교육에의 집중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자녀가 떠나고 부부가 나이 들어 살아가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관계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이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에게 비해 노년기에 더 좋은 부부관계를 갖고 성공적인 노화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비추어 보았을 때 자녀의 교육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부부가 지속해서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가족교육은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와 이들과의 소통뿐 아니라 이 시기에 부부관계를 든든하게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 자녀 독립기

자녀가 20세가 넘으면서 사회로 진출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되는 시기다. 자녀의 대학입학 및 졸업, 취업, 그리고 결혼을 하는 시기로 이들의 인생에서 큰 도전과 변화를 겪는다. 또한, 부모님의 집을 서서히 떠나게 된다. 부모는 중장년기를 지나면서 사회생활에서 공헌이 극대화되고 책임이 크게 부과되는 시기이며 이와 함께 서서히 노화로 말미암은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 등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발달과업으로는 부부중심의 거주환경 설정, 건강 대책의 마련, 장래를 위한 경제적 계획, 부부간 상호보충적 역할 발전, 부부간 상호작용 증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인생관 재확립 등이 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자녀가 서서히 떠나면서 부모가 이전과는 다른 부부관

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하다. 이 시기 부부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강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중년기로의 전이는 강한 정서적 변화를 동반하고 변화가 불안정할 때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 상대방의 지지가 부족할 때 고립감이나 거절감을 강하게 받을 수도 있기에 부부간의 정서적 지지는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사와 집안일에 대한 규칙들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럴 때 부부간의 많은 대화와 소통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부부관계가 성장할 수 있다.

### 노년기 가족

본인과 배우자의 노령화에 적응하고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는 시기로서 자녀의 독립과 의존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특히, 합리적인 경제적인 대책의 마련, 정신적 신체적 건강의 유지, 적절한 거주환경의 선택, 부부관계의 개선, 죽음의 수용, 가족 친지와와의 유대감 등을 유지하는 것을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가족학자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처럼 남성의 은퇴연령이 빠른 사회에서는 남성이 은퇴 이후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에도 좋고 성공적인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맺는 말

가족주기 이론이 사회과학에 기초를 두지만, 부부가 현재와 미래에 경험하는 인생과 가족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가족 구성원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 이론이 잘 사용될 때 가정사역의 전문성이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김성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브렌디와인 캠퍼스(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randywine)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족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 부부관계, 남성과 아버지, 다문화 가족, 질적연구방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툼 허베스톨 지음 | 이경미 역 옮김 | 2012.1월, 홍성사 펴냄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이 책에서 허베스톨 목사는 설교가라기보다 치유자이다. 그의 저술은 위선과 착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며 치유한다. 전통, 율타리, 규범으로 바뀐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 모든 '바리새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 허베스톨은 누구인가?

기독교계의 외국 저자 중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들이 있다. 존 스토틀, 토저 등과 같은 이름이 그들이다. 이들은 복음적이며 보수적이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목사이며 신학자로서 우리에게 고전적인 저자로 남아있다. 글의 문체와 영성의 분위기를 좀더 대중화하면 역시 익숙한 외국 저자들의 목록이 생성된다. 찰스 스윈돌, 유진 피터슨, 리처드 포스터 등과 같은 이름이 또한 그들이다.

이들은 한국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독교계 인기 저술가로 아마도 마니아 그룹이나 팔로어도 대단해 보인다. 고정독자층을 형성한 저자들이다. 그들의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거의 거부감 없이 읽힌다. 여기에 톼 허베스톨(T. Hovestol)을 첨가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경하고 생소하다. 그런데 전혀 낯설지가 않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위에 소개한 기존 저술가들과 비교해서 문체와 분위기가 참 비슷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책 곳곳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저술가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한다. 허베스톨은 스와질란드에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목사로 섬겼으며 그리하여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신앙인들의 위선적 페르소나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뇌하였다.

### 현대 신앙인의 페르소나에 말 걸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 그 비판이 정당할 때에도 비판하려면 웬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서? 용서하지 못하므로? 자책감이 먼저 들 때가 잦다. 이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주로 이런 성경 구절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마 7: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그런데 이런 심적 장애물을 부숴버리고 비판을 감행할 때 정당화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 비판을 정당화하는 최상의 조건은 바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적이다! 라는 딱지가 붙으면 어떤 비판이라도 할 수 있는 면죄부, 용기를 준다. 왜 그럴까. 아마도 신약 성경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하며, 종종 특정한 색깔론으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3:7),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

까 의논하거늘”(마 12: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눅 11:43).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등장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부정적이다. 율법 준수를 철저하게 주장, 실행하려는 이른바 보수꼴통이다. 그런데 그 외골 뒤에는 손 아래위가 다른 것처럼 상황에 따라 조삼모사 하는 카멜레온,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이중인격자, 어떤 형태로든 자기편이 아니다 싶으면 폭력도 불사하는 새디스트가 들어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바리새인이 모든 비판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탄축을 건다. 바리새인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것이다. 바리새인은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를 지칭하는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렸지만, 그들의 역사적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계몽한다. (저자는 책 곳곳에서, 부록에서 바리새파의 역사에 대해 실증적으로 언급한다. 무턱대고 선입견에 젖어 바리새파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안목으로 관찰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잘못 가공하면 나 자신을 살피는 데 실패할 뿐더러, 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p.29). “박수 받을 만한 바리새인의 특징”(p.34)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우리 안의 바리새인”

저자가 지목하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무서운 존재, 즉 현대 신앙인들의 욕망이다. 바리새인의 실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인 “바리새인” 뒤에 숨어서, “바리새인”을 들먹이며 “바리새인”보다 더 교활한 꾀수를 행하는 현대 기독교인의 욕망이다. 저자는 이 부분을 통렬하게 폭로한다. “바리새인은 바로 나다!”(p.44). 그렇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바리새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깨달음과 회개에 돌입해야 한다. 이보다 더 통렬한 자기 고발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허베스톨 목사는 <우리 안의 히틀러> (Hitler in us)라는 책을 기억한다. 이 책은 나치 독일을 지배하던 히틀러를 비판한 수많은 이론 앞에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했다. “히틀러만을 죄인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히틀러적 성향이 나치주의를 불러왔다”는 논지였다. 저자는 이 책을 간접 인용하면서 현대 신앙인들의 위선을 “우리 안의 바리새인”이라고 진단한다. 허베스톨의 본심은 여기에 있어 보인다.

### 우리 안의 쓴 뿌리 “자기 의”

장점과 선의를 가진 바리새파가 왜 부정과 치욕의 대명사로 변질하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진리와 가까웠기 때문이다”(p.45).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요 2:17, 시 69:9).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선의다. 그 심령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열심이 실수하고, 좌초하고, 때로는 범죄함으로 떨어지는가? 여기에 인간의 죄와 탐욕이 가세하기 때문이다. 자기의(自己義, Self-Righteousness) 때문이다. 이 책의 원제가 <Extreme Righteousness>인 것을 생각하면 저자가 무엇을 폭로하고, 치유하려 했는지 예견하게 된다.

“성경은 늘 바리새인을 상기시키면서 종교가 얼마든지 모조품이 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증명한다. 예수님 시대부터 교묘히 왜곡된 바리새주의는 교회로 꾸준히 침투했다. 전통, 분리주의, 자기 의, 꾸며진 쇼 등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징후다”(p.56). 저자는 여러 부분

으로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 양태를 분석하고 지적해 준다. 허베스톨은 바리새인들이 위선의 대명사처럼 변질된 것은 종교적 전통과 습관에서 구원을 찾았던 데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대 신앙인들은 이런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는 놀랄 정도로 닮았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무리를 새롭게 조명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한 최선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p.45).



### “우리 안의 바리새인”

저자는 다양한 목회 경험을 통해,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리새적” 오류에 빠지게 되는지 분석, 대안을 제시해 준다. 책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성경해석, 말씀 묵상, 생활의 적용 등등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 착각을 가려준다. 저자의 글쓰기는 삼중(三重)으로 짜여있다. 신앙생활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찾아내어, 이를 현대 신앙인의 구체적 사례로 연결한다. 풍요로운 사례는 독자들로 하여금 치유로 안내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진단은 실로 안일과 축복의 복음을 요구하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도란 가짜 약과 같아... 때로 현실 도피,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된다... 사역에 투신하는, 신앙 좋은 사람들도 기도를 등한시한다”(p.142). “영적 무감각을 감추려면 교회 활동을 왕성히 하면 된다. 비극적이게도 기독교인은 충만함이 아닌 공허감으로 바쁘게 사역한다”(p.268). “교회는 이따금씩 브로드웨이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진 배우가 된다”(p.270).

이 책에서 허베스톨 목사는 설교가라기 보다 치유자이다. 그의 저술은 위선과 착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며 치유한다. 전통, 율타리, 규범으로 바뀐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 모든 “바리새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진짜 기독교처럼 포장된 종교적인 대안은 언제나 존재한다”(p.284). 이 책은 풍부한 임상 사례들로 우리 자신들이 의명의 영적 질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참으로 귀한 안내서이다.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 문화운동가이다.



## 신을 탐하다

(Who made God?:  
Searching for a theory of everything)

에드거 앤드류스 지음 | 홍종락 옮김 | 복 있는 사람 펴냄  
 ☞ 최용준 (한중대 교수)

저자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는 변증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과학과 세상을 조망하고, 단순한 비판이 아닌 논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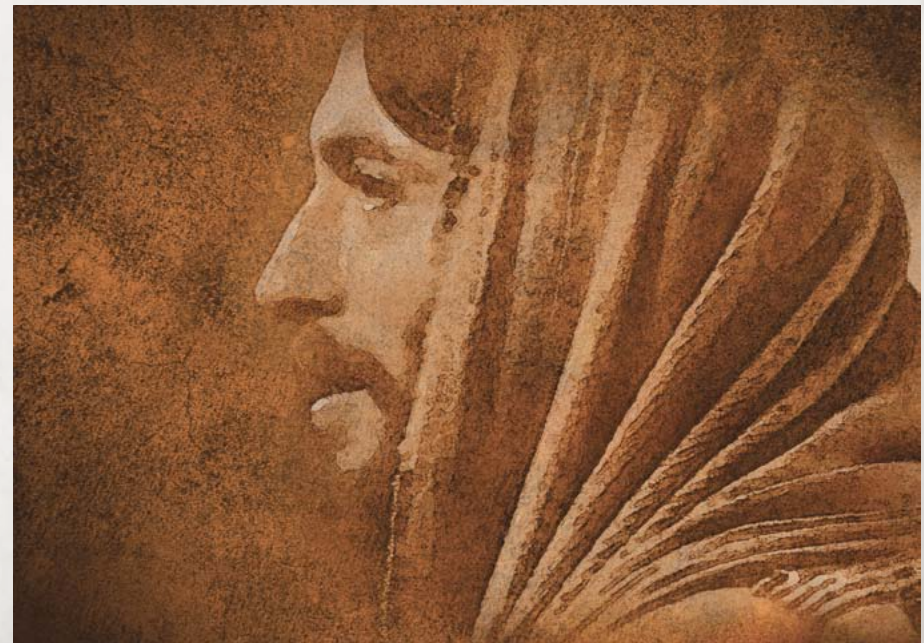
본서는 영국의 탁월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에드거 앤드류스(Edgar H. Andrews)가 리처드 도킨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신론'에 대해 명확하면서도 유쾌한 방법으로 기독교 유신론을 변증한 것이다. 에드거 앤드류스는 고분자 물리학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탁월한 과학자로 1967년 런던대학교 퀸 메리 칼리지에 재료학부를 세우고 교수와 학장을 역임했다. 1972년 미시간 분자연구소 심포지엄에 특별 강사로 초청된 네 명 중 한 명이기도 한 그는, 현재 런던대학교 재료학부 명예교수이자 하트퍼드셔 웰원 가든시티 캠퍼스교회의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학생 시절 성경을 읽고 회심한 이후, 학업을 계속하면서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양자 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책을 저술했다. 나아가 1986년에는 옥스퍼드대학교의 권위 있는 토론 클럽인 옥스퍼드 유니언의 '헉슬리 기념 토론회(Huxley Memorial Debate)'에서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타당성이 있다'는 주제로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논쟁하기도 했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이 출간된 이후, 저자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과 그리스도인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는 변증서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성경적 세계관으로 과학과 세상을 조망하고, 단순한 비판이 아닌 논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완성했다. 본서는 출간 즉시 영국의 각종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영국 아마존 종교 부문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현재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저자는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주석서를 쓰기도 했다. 그의 다른 책 「From Nothing to Nature: Young People's Guide to Evolution and Creation (무에서 자연으로: 진화와 창조에 대한 청년들의 가이드)」도 1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도킨스와 그의 동료는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제기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질문이 '신'과 '창조'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가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그는 이 점을 그의 풍부하고도 전문적인 지식(현대 물리학의 발견, 우주·시간·도덕의 기원, 온갖 법칙과 생명, 인간의 정신 등), 그리고 특유의 유머로 쉽고 재미있게 논증하고 있다. 다윈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적,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무신론의 주장들을 분석, 비판하고 있는 이 책은, 깊이 있고 진지한 사유를 싫어하고 점점 피상적인 삶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과학과 신앙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양자는 서로 대립적이며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는 견해이며, 둘째로 양자는 각각 독립된 영역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셋째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중복됨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양자는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 도킨스는 과학이란 신앙에 대립하며 자연 과학을 통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에 대해 저자는 과학자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학문 활동 자체가 자연법칙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는 영역이 이해 가능한 일종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전제적 믿음 아래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며 나아가 통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저자는 물리학의 최신 이론인 끈이론을 설명하면서 과학 활동의 가설적 성격을 보여준 다음, 성경의 '하나님 가설'을 목적지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후 장별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한 후 거기에 해당하는 진화론의 주장과 근거를 소개하고 비판한 뒤, 그 주제에 대해 하나님 가설의 입장과 타당성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령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 유전자 부동 등 진화론의 기본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진화의 증거로 제시되는 핀치새의 부리, 해충의 살충제 내성, 겸상적혈구 빈혈 등 여러 사례를 참신한 비유와 재미있는 유머를 곁들여 매우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시중 유쾌한 분위기 가운데 친절하고 알아듣기 쉬운 설명을 통해 다윈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적 자연주의 세계관과 무신론의 주장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석, 비평하면서 신선한 통찰과 재치 있는 서술로 과학과 신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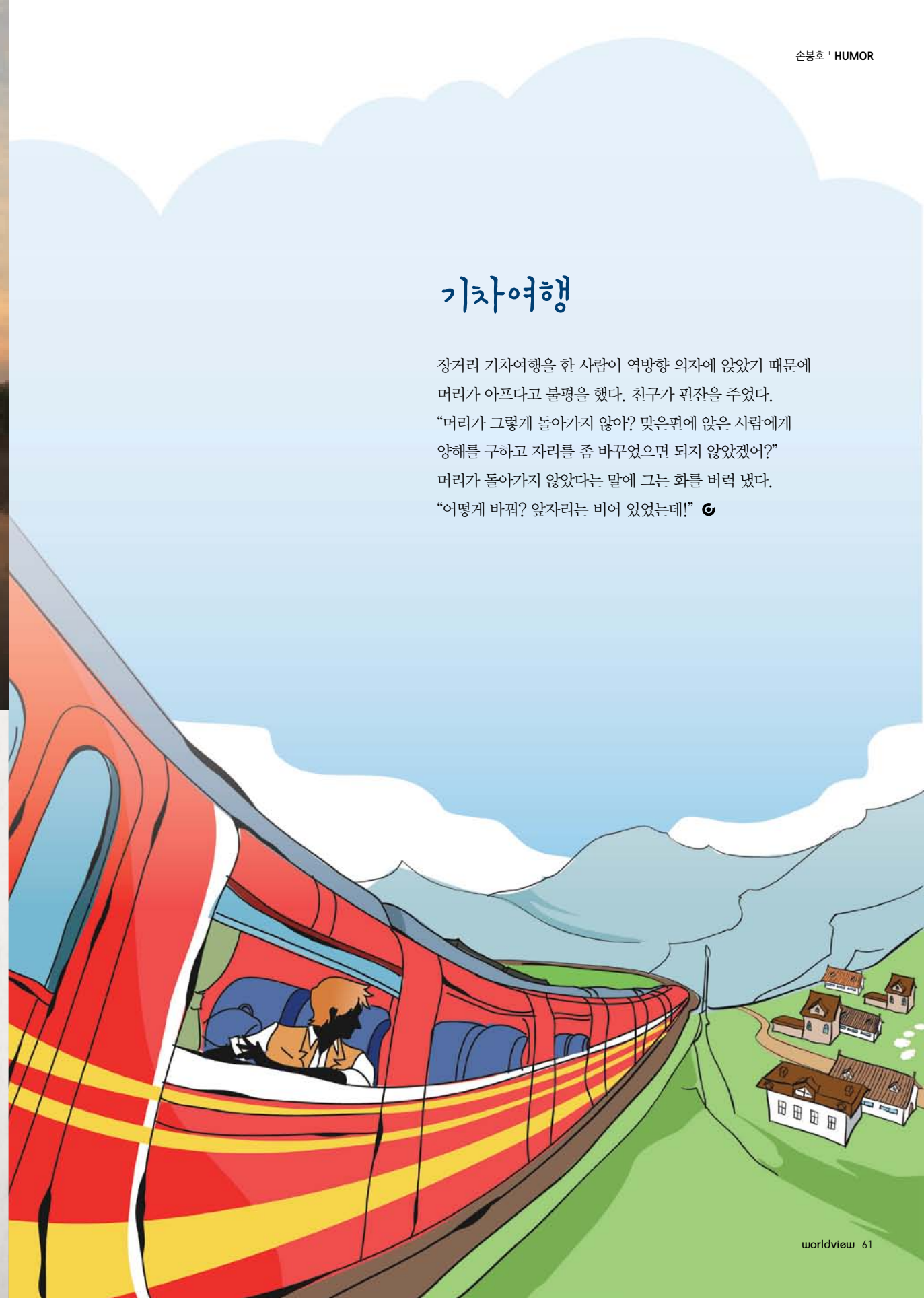
하지만 본서를 읽으면서 필자는 자연과학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저자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내용을 매우 쉽게 설명하는 동시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도킨스가 자신의 견해를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진화론적 무신론이 그에게는 하나의 전제적 신앙이요 확고한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종교적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유신론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학문적 회심은 그 영적 뿌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최용준** 한동대 교수이며 VIEW(캐나다 밴코버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및 ETF(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원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거쳐 남아공 포체프스트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쾰른한빛교회, 브뤼셀 한인교회 담임목사와 KUIS(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KOSTA, YWAM, CBMC, Diaspora 2011 강사 및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기차여행

장거리 기차여행을 한 사람이 역방향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불평을 했다. 친구가 핀잔을 주었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좀 바꾸었으면 되지 않았겠어?”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에 그는 화를 버럭 냈다.  
 “어떻게 바뀌? 앞자리는 비어 있었는데!”



# WORLDVIEW NEWS



## CTC 청소년 기독교세계관학교 지도자과정 안내

- **일시** : 2012년 7월 2, 9, 16일.  
매주 월, 오전 10~오후 6시
- **대상** :  
1) 교회에서 청소년기독교세계관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역자, 교사  
2)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부모
- **장소** : CTC 크리스천싱킹센터 세미나실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272-5, 대학역 1번 출구, 킨텍스 방향 도보 5분)
- **회비** : 30만원(10만원 CTC 장학금 지원)
- **등록** : 우리은행 375-184526-02-001 (예금주 : 유경상).  
입금 후 꼭 연락바랍니다.  
010-7301-7178, 한부의 팀장
- **강사** : 유경상 CTC 대표  
- 기독교세계관 입문서, 크리스천 씽킹 저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세계관 강사  
- 거룩한 빛 광성교회 어린이세계관학교 운영

## VIEW(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입학설명회 안내

7월 26일(목) 오후 7:30 VIEW입학설명회가 동역회 사무국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와 창조론 오픈포럼을 위하여 7월 25일~8월 9일까지 양승훈 원장이 방한하오니 강의나 설교, 면담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선출

호남신학대학교 차기 총장으로 동역회 회원인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노영상 교수가 선출되었습니다. 오는 9월 초에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 간사 모집 공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교 학문의 토대를 마련하여, 실천적 지식과 정보를 교회에게 제공하며 교육, 언론, 출판 등의 활동을 통해 이를 더욱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에 뜻을 두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 열정의 젊은 동역자님을 모집합니다.

- **근무형태** : 전일사역 간사 (주5일 근무)
- **공통지원자격**  
1) 신앙고백이 있는 신실하고 성실한 성도(세례교인)  
2)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사역에 공감하는 열심과 열정의 그리스도인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하여)
- **급여 및 처우** : 면접시 협의
- **복지후생** : 4대보험, 점심식대 제공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 **기타 문의사항** : 02-754-8004(사무국), info@worldview.or.kr



## 신앙과 학문 논문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료 학문의 각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논문투고는 상시접수이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연 4회 발간되는 발행일에 맞춰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심사기간이 단축되어 3주 내 심사결과를 알 수 있으며 급행심사 및 급행게재 절차도 준비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논문 투고, 사제 간의 공동 논문 외에도 교회와 청년들의 논문투고도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 회원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제9기 C-LAMP 크리스천 최고 경영자 과정 모집

**CL VISION STATEMENT**  
C-LAMP는 기독교 경영인들이 경영 현장에서 참지자적 소명을 재확인하고 동역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 기업 속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감으로써 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행동을 추진합니다.

## 커리큘럼 Curriculum

✦ **C-LAMP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크리스천 리더십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원동력을 회복 시키고자 합니다.**  
일터 사역, 예배와 중보기도, 성경적 직업관, 성경의 권위와 말씀 목상, 비즈니스 선교, 청지기 정신, 나귀와 포도나무, 일터교회 세우기, Beyond Babel

✦ **C-LAMP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일궈내는 실천 전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가, 성경적 리더십, 하나님의 소유권, 성경적 관점의 전략/기획, 성경적 인사/노사, 성경적 조직관리, 성경적 관점의 마케팅, 성경적 재무관리, 창의적 문화와 혁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 전략적 제휴와 자원 활용, 기독교경영사례

✦ **C-LAMP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통찰하면서 개인, 가정, 일터, 국가, 세계의 올바른 회복과 균형적 발전을 제시하는 전문가, 석학 초청 특강을 제공합니다.**  
한국 경제 특강, 통일 비전, 교육 경쟁력, 빈곤, 기아 대책, 인생의 하프타임, 대인 관계, 갈등 해소법, 가정의 신비, 건강법, 세상을 바꾸는 문화

## 세미나 Seminar

### ✦ 해외 세미나 - 하와이 열방대학

뜨거운 영성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C-LAMP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하와이 코나에 위치한 열방대학에서 1주일간 '크리스천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 ✦ 부부세미나

부부세미나의 특별 초청 명사 강연을 통해 바람직한 크리스천 가정상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경영인으로서의 보람과 기쁨, 갈등과 어려움을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동역자를 알게되는 자리입니다.

## 과정안내

- \* 학사 일정 : 2012년 09월 6일(목)~ 12월 13일(목) 15주과정
- \* 강의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5:30 ~ 9:30
- \* 강의 장소 : 그랜드 앰버서더 호텔 (서울 장충동 소재)
- \* 등록금 : 420만원(교육비 영수증 발급, 세미나 비용 별도)

## 특전

- \* 명지대학교 및 열방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동문회 활동지원
- \* C-LAMP 교수진의 자문과 지도/ 뉴스레터, 특강자료집 등 정기간행물 증정
- \* 동문 추천시 10% 할인 특전 부여/ 부부등록의 경우 50% 할인 특전 부여

## 입학지원 관련 문의

www.ceedkorea.org

137-824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37-8  
대진빌딩 301호 CEED KOREA  
전화 : 070-8263-9118  
010-3121-7568(조정민 간사)  
E-mail : clamp@ceedkore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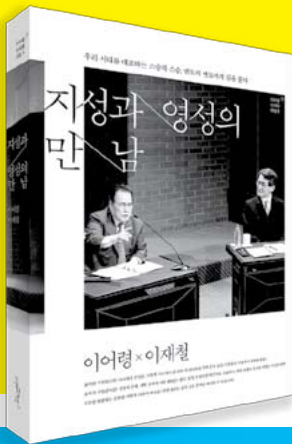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스승의 스승, 멘토의 멘토에게 길을 묻다

# 지성과 영성의 만남

이여령  
이재철  
대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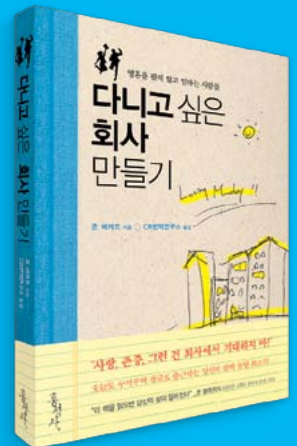
지성의 한계를 깨달은 뒤 영성이 묻어나는 지성으로 거듭난 이여령 교수와, 삶의 현장에서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꾸준히 실천해 온 이재철 목사가 만나 삶, 가족, 교육, 사회, 경제, 정치, 세계, 문화, 종교를 주제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현재까지도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뿌리고 있는 2010 양화진문화원 화제의 강좌, 그 감동의 순간을 책으로 만나다.

이여령·이재철 지음 | 믿음의 글들 300 | A5변형 | 344면 | 본문2색 | 15,000원



오늘도 이를 악물고, 주말만 바라보면서 일하진 않습니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회사, '사랑'과 '존중'의 기업 경영

#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기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자 맥스 드프리 <리더십은 예술이다> 저자  
헨리 블랙커비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저자 등 추천!

'사랑', '존중'은 직장 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단어일까?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회사에서 '사랑'과 '존중'을 받느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개개인의 존엄성과 목적의식을 살려 주는 베케트 사의 '직원 존중', '관계 중심' 경영 이야기를 만나 보자!

존 베케트 지음 | CR번역연구소 옮김 | 믿음의글들 297 | A5변형 | 228면 | 12,000원

T. 333-5161 <http://www.hsbooks.com>

홍성서.